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19호 【루계 제25628호】 주체106(2017)년 4월 29일 (토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고 최준경동지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일성상수상자이며 로력영웅인 공훈국가합창단 고문작가 최준경동지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 28일 고인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총련조직과 단체들에서 감사편지들을 드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재일동포자녀들에게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신 60돐에 즈음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재일본조선인교직원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재일본조선인교육회 중앙상임리사회, 재일본조선인과학기술협회 중앙상임리사회, 재일본조선인의학협회 중앙상임리사회, 재일본조선류학생동맹 중앙상임위원회, 학우서방 그리고 총련의 각 지방본부들, 조선대학교와 각급 재일조선학교들에서 감사편지들을 드리였다.

감사편지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재일동포자녀들에게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신 60돐에 즈음하여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다함없는 경모와 충정의 한마음을 담아 사랑의 생명수로 민족교육의 대화원을 가꾸어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께 최대의 경의를 드리였으며 전설같은 사랑의 력사를 변함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감사를 드리였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가슴마다에는 60년전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한 첫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받아안던 감격과 해마다 거액의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신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그리고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꼭 같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한없는 감사의 정이 뜨겁게 차넘치고있다고 감사편지들은 지적하였다.

감사편지들은 조국인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전후복구건설을 진행하는 그 어려운 시기에 재일동포자녀들을 공부시킬 돈을 보내줄데 대한 국가예산항목을 내오도록 하신 위대한 수령님과 조국이 고난의 행군을 해야 했던 그 준엄한 나날에도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빠짐없이 보내주신 어버이장군님의 숭고한 민족애, 동포애로 수놓아진 사랑의 력사를 대를 이어 길이 전해갈것이라고 밝혔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베풀어주신 은혜로운 손길그대로 민족교육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대해같은 은총과 배려를 돌려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뜻대로 민족교육사업을 총련의 중심과업으로 변함없이 틀어쥐고나갈것이라고 감사편지들은 강조하였다.

감사편지들은 일본반동들이 재일조선학교를 없애려고 발광적으로 덤벼들어도 재일조선인운동의 생명선인 민족교육을 끝까지 고수할 결의들을 표명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총련의 애국충정의 본태를 빛내여나가기 위해 일심단결과 동포들사이에 오가는 따뜻한 정을 힘으로 하여 온갖 시련을 뚫고 민족교육사업에서 기어이 새로운 앙양을 이룩해나갈것이라고 감사편지들은 지적하였다.

감사편지들은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영원한 행복을 위하여, 재일청소년학생들의 희망찬 앞날을 위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부디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하였다.

본사기자

인민의 수령, 인민의 어버이

태양절에 즈음하여 경축모임, 연적토론회, 음악감상회가 3월 29일부터 4월 15일까지의 기간에 도이췰란드의 정당, 단체들에서 진행되였다.

도이췰란드의 정계, 사회계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한 행사들에서는 발언들이 있었다.

도이췰란드공산당 위원장은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한평생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바치시였으며 세계사회주의위업수행에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혁명과 건설을 현명하게 이끄시였기에 조선은 동유럽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제국주의자들이 《사회주의완전종말》을 떠들어대던 엄혹한 시기에도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을 꿋꿋이 걸어갈수 있었다.

세계는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에 당당히 맞서 자기의 자주권과 존엄을 영예롭게 수호하고있는 조선을 선망의 눈길로 바라보고있다.

김일성동지 그대로이신 존경하는 김정은동지를 최고령도자로 모신 조선은 앞으로도 영원히 진보적인류의 희망의 등대로 빛을 뿌릴것이다.

도이췰란드련방공화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협회 부위원장은 김일성동지께서는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인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인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로선과 정책을 작성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의 행복을 자신의 최대의 기쁨으로 여기시였다, 세상에는 위인들이 많아도 진정한 인민의 수령, 인민의 어버이는 오직 그이뿐이시다고 격찬하였다.

도이췰란드민제연단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에는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비롯하여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업적을 찬양하는 명곡들이 많다. 그 하나하나의 노래들은 절세위인의 혁명투쟁력사와 숭고한 조국애, 인민애를 반영하고있다.

조선인민은 김일성동지께서 서거하신 후에도 수령영생송가들을 창작하여 널리 보급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지니시였던 조국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그대로 체현하신 존경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천만군민을 최후승리에로 이끌고 계신다.

하기에 조선인민은 김정은동지를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그이를 칭송하는 노래들을 즐겨부르고있다.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받는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힘을 꺾을자는 이 세상에 없다.

【조선중앙통신】

고경찬영웅소대를 따라배워 증산투쟁, 창조투쟁, 돌격투쟁을 힘있게 벌리자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하여

철길강도를 높일수 있는 확고한 토대 마련

철도성 10여개 단위들에 콩크리트침목생산공정 확립, 생산 시작

철도성아래 각 철도국과 분국들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최근 두달동안에 자체의 힘으로 콩크리트침목생산기지들을 꾸려놓고 뜻깊은 태양절을 앞두고 생산을 시작하였다.

년간 연 20여만정의 콩크리트침목을 생산할수 있는 10여개의 생산기지들이 각 철도국과 분국들에 일떠섬으로써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기간에 나라의 철길강도를 한계단 높일수 있는 돌파구가 열리게 되였다.

이 자랑찬 성과는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뜻깊은 올해에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여 만리마선구자대회장에 떳떳이 들어서려는 철도운수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불보다 뜨거운 애국충정과 헌신적인 투쟁기풍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5개년전략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전민총돌격전을 힘차게 벌려야 합니다.》

철도성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성일군들은 각지에 콩크리트침목생산능력을 새롭게 조성하여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기간에 나라의 모든 철길침목을 콩크리트침목으로 교체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조직전개하였다. 성일군들은 이미전에 자체의 힘으로 콩크리트침목생산기지를 꾸려놓은 사리원철도분국을 본보기단위로 내세우고 그 경험을 각 철도국과 철도분국에 일반화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고 완강하게 밀고나갔다.

성에서는 능력있는 일군들로 지휘부를 조직하고 침목생산기지건설에 대한 장악과 총화를 현실조건에 맞게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면서 사회주의경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였다.

함흥철도국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짧은 기간에 철길강도를 높일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할 드높은 열의로 심장의 피를 끓이며 치렬한 전투를 벌려나갔다.

국의 일군들은 침입식정치사업을 드세게 벌려 침목생산기지건설에 동원된 돌격대원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분출시키는것과 함께 전투조직과 지휘를 혁명적으로 해나갔다. 이들은 후방사업과 자재보장에 힘을 넣으면서 전진하는 대오의 앞장에서 이신작칙하며 돌격대원들이 건설속도와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도록 요구성을 높여 련일 놀라운 성과가 이룩되게 하였다.

돌격대원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쳐가며 합리적인 작업방법들을 련이어 받아들여 생산건물건설과 설비조립을 불이 번쩍 나게 다그쳐 콩크리트침목생산기지를 손색없게 일떠세우는 모범을 보이였다.

회령철도분국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도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에서 기적을 창조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내무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고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며 침목생산기지건설을 다그쳐나갔다. 그 과정에 석탄소비를 40%나 줄이면서 양생시간을 단축할수 있는 증기보이라를 비롯한 여러 설비들을 훌륭히 제작하여 설치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사리원철도분국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집단적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며 진동기와 혼합기를 비롯한 5종의 설비들을 새로 제작하여 침목생산기지의 능력을 1.5배로 끌어올리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평양철도국과 순천, 해주, 고원, 정주, 강계철도분국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도 만리마선구자대회를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해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며 침목생산기지건설을 빠른 기간에 다그쳐 끝내고 생산에 진입하였다.

각 철도국과 철도분국에서는 콩크리트침목생산기지건설이 완공되는데 맞게 철근과 세멘트, 모래, 자갈을 비롯한 생산용자재들을 미리미리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내밀어 4월초부터 10여개의 모든 생산기지들에서 콩크리트침목생산의 동음이 련이어 높이 울려퍼지게 하였다.

성일군들은 과학자, 기술자들을 발동하여 여러 용도의 세멘트를 침목생산에 리용할수 있는 과학기술적담보를 마련하였으며 여러곳에서 침목의 질을 보장할수 있는 모래와 자갈원천지를 찾아내여 침목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게 하였다.

성일군들의 작전과 지휘에 따라 원산철도차량련합기업소, 라흥철도공장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침목생산에 필요한 철근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는 고강도환강생산공정을 일떠세웠다.

이와 함께 각 철도국들에서 청년철길기계화기동중대 숙영차꾸리기와 철길기공구갖추기가 힘있게 벌어져 철길강도를 높이기 위한 투쟁이 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될수 있게 되였다.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오늘의 전민총돌격전에서 나라의 동맥을 지켜선 높은 책임감을 안고 산악같이 떨쳐나선 철도운수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철길강도를 높이기 위한 투쟁에서 련일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본사기자 정경철

강철전선지원열의 더욱 고조

각지 당원들과 근로자들

만리마속도창조투쟁으로 무궁무궁 끓어번지는 금속공장들에 더 많은 파철을 보내주기 위한 각 도, 시, 군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지원열의가 날이 갈수록 더욱 높아가고있다.

지난 1.4분기간 말겨진 파철모으기를 넘쳐 수행하여 나라의 강철기둥을 억척으로 다지는데 크게 이바지한 각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파철모으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애국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이고 투신입니다.》

1.4분기간 파철모으기를 149%로 수행한 자강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더 높은 목표를 내걸고 금속공장지원사업에 떨쳐나섰다.

도의 일군들은 선전선동력량을 동원하여 1.4분기 금속공장지원사업에서 모범을 보인 단위들의 성과와 경험을 널리 소개선전하면서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의 열풍을 고조시키기 위한 드세찬 사상공세를 들이대고있다.

초산군, 만포시, 장강군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1.4분기간 이룩한 성과에 자만함이 없이 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파철원천탐구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평양시, 남포시, 함경북도, 황해북도, 강원도, 함경남도의 당원들과 근로자들도 공장과 일터, 거리와 마을들에서 파철모으기사업을 근기있게 벌려나가고있다.

대동강구역, 선교구역, 서성구역에서는 일군들부터 이신작칙의 기풍을 발휘하면서 파철모으기에로 대중을 불러일으켜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천리마구역, 항구구역, 경흥군, 김책시, 청진시 포항구역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애국의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이고 투신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심장에 새기고 금속공장지원사업에서 애국의 열정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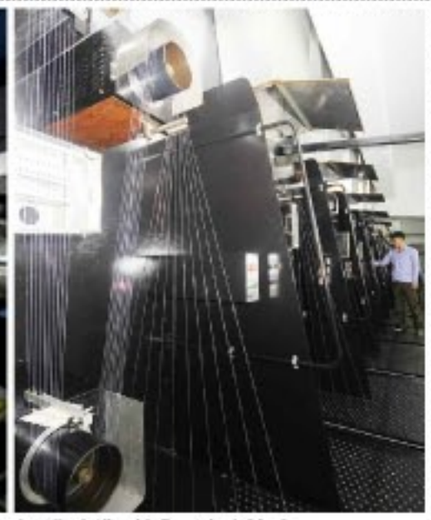
중화군, 송림시, 세포군, 단천시, 덕성군을 비롯한 여러 시, 군의 당원들과 근로자들도 조국의 강철기둥을 억척으로 다지는데 한몫하겠다는 불타는 애국열의를 안고 파철원천을 찾아내기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벌려 높은 실적을 이룩하고있다.

슬판지도국, 보건성, 전력공업성, 농업연구원, 조선통일발전은행, 사회과학원, 조선태권도위원회, 만수대창작사, 대외경제성을 비롯한 성, 중앙기관의 정무원들과 근로자들도 매월 파철집중수송에 성심성의껏 참가하여 불타는 애국열의를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함흥철도국, 개천철도국, 청진철도국의 수송전사들이 모아놓은 파철을 제때에 금속공장들에 보내주기 위한 수송전투를 힘있게 벌려 증송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만리마선구자대회를 높은 로력적성과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각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날로 높아가는 강철전선지원열의는 금속공장마다에서 원쑤들의 비렬하고 악랄한 제재책동에 파렬구를 내는 승리의 쇠물쪽로로 이어지고있다.

본사기자 리철옥



만리마선구자대회를 승리자의 대회로 빛내일 일념안고 생산에 힘을 돋고있다.
—평양인견사공장에서—
본사기자 한광명 찍음

전쟁로병보양소를 훌륭히 건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적으로 전쟁로병들을 존대하고 우대하는 기풍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평안북도에서

평안북도에서 전쟁로병보양소를 훌륭히 일떠세웠다.

전쟁로병들을 존대하고 잘 돌봐줄데 대한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한결같이 떨쳐나 전쟁로병보양소를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게 번듯하게 건설하였다.

신의주시 송한지구의 경치좋은 곳의 수천㎡의 면적에 특색있게 건설된 전쟁로병보양소는 기본건물과 보조건물, 실내물놀이장, 휴식터, 정각 등으로 꾸려져 전쟁로병들이 휴식과 보양을 충분히 할수 있게 되여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지난해에 전쟁로병보양소를 일떠세우기 위한 목표를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렸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도인민위원회에서는 전개력있는 일군들로 공사지휘부를 조직하고 로력과 자재, 설비보장사업을 앞세워나갔다. 공사지휘부의 일군들은 단계별공사목표를 명백히 세운데 기초하여 모든 시공단위들에서 매일 맡은 공사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도인민위원회책임일군들은 평안북도와 함경북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강원도정신창조자들의 투쟁정신과 일본새를 따라배워 전쟁로병보양소를 훌륭히 일떠세우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평안북도에서

현장에 나가 살다싶이 하면서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었다.

도인민위원회일군들과 동창군, 피현군, 신의주시에서 달려나온 돌격대원들은 착공의 첫삽을 박은 때부터 여러가지 앞선 공법을 널리 받아들이면서 공사속도를 1.2배로 높여 짧은 기간에 기초굴착공사와 벽체축조공사를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내외부미장공사가 시작되자 도인민위원회에서는 내무예비를 탐구동원하여 타일과 위생자기들을 비롯한 마감자재들을 제때에 보장해주면서 공사를 최단기간내에 최상의 수준에서 다그치도록 적극 떠밀어주었다.

도인민위원회의 일군들은 지대정리와 물길공사, 잔디심기, 나무심기 등을 하면서 전쟁로병보양소건설에 애국충정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치였다. 이와 함께 침대와 식탁, 의자 등 비품들과 주방설비들을 좋은것으로 갖추어주기 위한 사업에 품을 들이였다.

전쟁로병들을 존대하고 잘 돌봐줄데 대한 당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한결같이 떨쳐나선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신의주시 송한지구에 번듯하게 일떠선 전쟁로병보양소는 지금 로병들을 기다리고있다.

특파기자 송향윤

함경북도에서

전쟁로병들을 존대하고 우대하는 기풍을 세울데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함경북도에서 전쟁로병보양소를 새로 훌륭하게 건설하였다.

풍천온천이 솟는 풍치아름다운 청진시 부윤구역 어유리에 일떠선 연건평이 3600여㎡에 달하는 보양소에는 침실들과 물놀이장, 운동실, 오락실, 안마실을 비롯하여 전쟁로병들이 아무런 불편없이 즐겁게 생활하는데 필요한 조건들이 그윽하게 갖추어져있다.

도들에 전쟁로병보양소를 훌륭히 건설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도당위원회에서는 풍치아름다운 곳에 보양소를 건설하기 위한 작전을 펼치였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10여일동안에 기초공사를 해제끼고 짧은 기간에 골조공사를 끝내는 혁신을 일으켰다.

공사지휘부일군들은 올해에 들어와 건설을 하루빨리 다그쳐 끝내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통이 크게 해나갔다. 일군들은 겨울철에도 습식공사를 내밀기 위한 보여주기 사업을 조직하고 건설자들에게 겨울철 내외부미장공사에서 나서는 기술적문제들을 잘 알려주어 련일 혁신이 일어나게 하였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와 경성애자공장, 부령합금철공장, 청진시 신암구역, 경성군에서 달려나온 건설자들은 보양소건설에 한결같이 떨쳐나섰다.

강원도정신창조자들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이 온 건설장에 나래쳤다.

건설자들은 불리한 날씨조건에서도 돌격전을 벌려 40여일동안에 내외부미장공사를 끝내고 타일붙이기를 질적으로 다그치는 혁신을 일으켰다. 전쟁로병들을 위하고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사랑을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건설자들은 한장의 타일을 붙이고 한그루의 나무를 심어도 질적으로 깐지게 해나갔다.

도림업관리국, 청진강재공장을 비롯한 련관단위들에서는 생산적앙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건설에 필요한 자재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었다.

도급, 시급기관들을 비롯한 많은 단위들과 동, 인민반들에서 전쟁로병보양소건설을 물심량면으로 적극 도와나섰다.

그리하여 온천이 솟는 풍치아름다운 곳에 전쟁로병들을 위한 사랑의 집이 훌륭하게 일떠섰다.

특파기자 리은남

현대적인 사리원가방공장이 일떠섰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것을 하루빨리 안겨주고싶은것이 나의 심정입니다.》

황해북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사리원가방공장을 훌륭히 건설하였다.

4000여㎡에 달하는 부지면적에 건설된 사리원가방공장은 생산건물과 제품전시실, 종합조종실, 도안창작실과 제본실, 과학기술보급실, 문화후생시설들을 갖춘 현대적인 공장이다.

도당위원회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숭고한 뜻을 심장에 새기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가방공장건설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였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일군들은 짧은 기간안에 가방공장건설을 끝낼 높은 목표를 세우고 로력조직과 자재보장을 앞세우면서 전투조직과 지휘를 패기있게 해나갔다.

현장지휘부의 일군들은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서 돌파구를 열어나가면서 침입식정치사업으로 전투원들의 심장마다에 불을 지피였다.

황해북도속도전청년돌격대원들이 공장건설에 헌신의 땀방울을 아낌없이 바치였다.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합리적인 공법을 받아들이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밤낮이 따로 없는 건장한 전투를 벌리였다. 불리한 날씨조건에서도 그들은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헌신적인 투쟁을 벌려 맡겨진 공사과제를 훌륭히 수행하였다.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부족한 건설자재를 자체로 해결하여 공사를 일정계획대로 내밀었으며 이채로운 장식효과를 낼수 있는 기발한 착상을 하여 건물형식을 새롭게 하는데 기여하였다.

도지방공업관리국의 일군들과 시안의 녀맹원들도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일인데 응당 앞장서야 한다고 하면서 건설에서 제기되는 크고작은 일들을 도맡아하였다.

현대적으로 일떠선 가방공장에서는 지금 학생가방을 생산하기 위한 준비를 다그치고있다.

특파기자 김천일

사회주의강국건설사에 길이 아로새겨질

금수산태양궁전뜨락가까이에 자력자강대승리의

우리는 지금 만리마속도창조의 고향, 려명거리의 한복판에 서있다.

이 행성의 온갖 어지러운 흙먼지회오리바람을 백두의 칼바람폭풍으로 쳐갈기며 전진하는 우리 조국의 기상이 느껴지고 사회주의완전승리의 명마루가 지척에 보이는 이곳에서 우리는 격동의 붓을 들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5돐을 맞는 2017년의 뜻깊은 4월에 려명거리준공의 포성을 높이 울린것은 백전백승 조선로동당과 우리 천만군민이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과의 총포성없는 전쟁에서 안아온 또 하나의 전승신화이며 전설에도 없는 만리마를 타고 폭풍쳐 내달리는 조선의 기상을 세계앞에 웅변으로 보여준 새로운 건설신화이다.

려명거리건설은 그 규모나 공사량에 있어서 세상사람들이 기적이라고 찬탄했던 미래과학자거리의 두배를 훨씬 넘가하는 방대한 공사였고 완공을 앞둔 거리건설을 중단하고 조국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북부피해복구전투까지 치르며 또다시 이어가야 했던 실로 간고한 격전이였다.

하지만 우리 군대와 인민은 270여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려명거리준공의 승전포성을 세계의 하늘가에 우렁차게 울림으로써 조선사람의 본때를 다시한번 보란듯이 과시하고 우리 후손들이 교과서에 새겨넣고 대를 이어 외우며 길이 전해갈 위대한 만리마속도를 창조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억척불변의 혁명신념과 필승의 기상을 안고 백두의 눈보라마냥 폭풍쳐 내달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으며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것입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 일떠서는 번화한 거리들을 놓고 세상사람들은 현대과학기술의 위력에 대하여, 억대의 재부에 대하여 론하군 한다. 그러나 우리는 려명거리를 그 건설에 도입된 현대과학기술이나 여기에 든 물질적재부의 크기로만 론하지 않는다.

조선로동당이 선포한 려명거리건설의 첫 신호포성이 울린 그날부터 270여일간 려명전역에서 분초를 다투며 일어나는 눈부신 기적을 종군기자마냥 전해오며 우리 한생토록 잊지 못할 얼마나 많은것을 보고 듣고 체험하였던가.

정녕 낮은 있어도 밤은 없었던 그 격렬한 건설사의 갈피갈피를 다시금 헤치며 우리는 이 세상에 유일무이하고 가장 위대한 자력자강의 창조물을 일떠세운 인간의 힘에 대하여, 자기 명도자의 결심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해서라면 강줄기도 돌리고 겨울도 봄으로 만들며 열흘, 백날을 하루로 주름잡는 군대와 인민의 불가항력적인 힘에 대하여, 바로 그 힘으로 창조한 위대한 건설신화에 대하여 세상에 소리높이 전하려고 한다.

건설의 선포, 그것은 벌써 위대한 승리였다

려명거리!

조용히 그 이름 부르면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우리 공화국을 삼켜보려고 떼지어 덤벼들며 전무후무한 대조선압살소동을 벌리던 지난해 세계의 하늘가에 우렁차게 울려퍼졌던 전설대전선포의 장엄한 뢰성이 귀전에 울려온다.

무엇때문인가. 어찌하여 우리 천만군민은 려명거리가 자기의 웅장화려한 대문을 활짝 열어 세집들이주인들을 맞이한 오늘에도 건설의 첫 기슭에 그러도 숭엄히 마음을 세우는것인가.

《아마도 시대와 력사가 려명거리의 출생증을 낸다면 그 생일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진실을 선포하신 2016년 3월 17일이라고 해야 할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격동적인 소식에 접하였을 때 우리는 벌써 려명거리건설승리의 만세를 불렀기때문입니다.》

려명거리건설참전자인 어느 한 인민군지휘관이 준공식장에서 격전의 나날을 더듬어보며 우리에게 한 말, 그것이 안고있는 의미는 실로 크다.

보통날, 보통때가 아니였다. 선군의 혁혁성과 우주에 떨친 우리의 정의의 위력에 덴 접한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제재와 봉쇄책동은 실로 극도에 달하고있었다. 우주강국, 핵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선 주체조선의 기상앞에 겁을 먹은 온갖 적대세력들은 우리의 병진로선관철을 필사적으로 방해하고 당 제7차대회장으로 향한 천만군민의 전야진군을 멈춰세워보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였다. 유엔력사 70여년의 그 어느 갈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야만적인 제재소동과 침략과 전쟁에서 악명을 떨쳐온 《6대전략자산》이 광그리 동원된 대전쟁소동이 우리 삶의 공간을 완전히 질식시키고 우리 삶의 지반마저 통째로 찬탈하며 우리의 운명인 사회주의제도를 말살하는데로 총집중되였다. 세계전쟁사에 가장 가혹한 제재의 대명사로 사람들을 전률케 한 레닌그라드봉쇄도, 랭전시대의 까리브해위기도 이 땅에 조성된 정세에는 대비조차 할수 없었다.

이제 조선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것인가.

온 세계의 이목이 크지 않은 조선에 시시각각으로 총집중되고있던 바로 그때 이 땅에서는 사람들의 예상을 뒤집어엎는 인민사랑의 건설포성이 울려퍼졌다.

지난해 3월 17일, 맞받아나가는 백두의 공격정신으로 원쑤들의 반공화국제재압살책동을 단호히 징벌하시며 70일전투의 철야진군을 진두에서 지휘하시는 그처럼 분망하신 속에서 몸소 현지에 나오시여 금수산태양궁전과 룡흥네거리사이에 일떠설 려명거리건설을 선포하시고 건설에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남들같으면 열백번도 더 주저앉았을 최악의 조건에서 그처럼 방대한 건설목표를 내세운 조선로동당의 결심앞에서 세계는 깜짝 놀랐다.

단순히 경제적타산에 기초한 용단이 아니였다. 당이 호소하면 드높은 산악도 통채로 허물고 검푸른 바다도 단숨에 메우는 천만군민의 정신력에 대한 조선로동당의 굳건한 믿음에서 솟발한 선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결심하시여 우리가 못한 일이 무엇이고 못 간 길이 무엇이던가. 그이의 결심은 곧 과학이고 실천이며 승리이다!

세상사람들은 그토록 엄혹한 환경과 조건에서 과연 그런 기적이 일어날수 있겠는가고 의문을 표시하고 지어 머리까지 흔들었지만 조선의 천만군민은 이렇게 승리를 굳게 믿었다.

그렇다. 려명거리건설선포, 그것은 벌써 위대한 승리였다. 천만군민에 대한 령도자의 믿음, 령도자에 대한 천만군민의 믿음이 하나로 합쳐지면 무한대의 힘이 된다. 바로 여기에 핵폭탄이나 수소탄보다 더 위력한 조선의 진짜힘에 대한 철학이 있다.

온 나라가 폭풍쳐 달려왔다. 미래과학자거리건설에서 영웅적위훈을 세운 군인건설자들이 최고사령관님의 공화국제재압살책동을 단호히 징벌하시며 70일전투의 철야진군을 진두에서 지휘하시는 그처럼 분망하신 속에서 몸소 현지에 나오시여 금수산태양궁전과 룡흥네거리사이에 일떠설 려명거리건설을 선포하시고 건설에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남들같으면 열백번도 더 주저앉았을 최악의 조건에서 그처럼 방대한 건설목표를 내세운 조선로동당의 결심앞에서 세계는 깜짝 놀랐다.

단순히 경제적타산에 기초한 용단이 아니였다. 당이 호소하면 드높은 산악도 통채로 허물고 검푸른 바다도 단숨에 메우는 천만군민의 정신력에 대한 조선로동당의 굳건한 믿음에서 솟발한 선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결심하시여 우리가 못한 일이 무엇이고 못 간 길이 무엇이던가. 그이의 결심은 곧 과학이고 실천이며 승리이다!

세상사람들은 그토록 엄혹한 환경과 조건에서 과연 그런 기적이 일어날수 있겠는가고 의문을 표시하고 지어 머리까지 흔들었지만 조선의 천만군민은 이렇게 승리를 굳게 믿었다.

그렇다. 려명거리건설선포, 그것은 벌써 위대한 승리였다. 천만군민에 대한 령도자의 믿음, 령도자에 대한 천만군민의 믿음이 하나로 합쳐지면 무한대의 힘이 된다. 바로 여기에 핵폭탄이나 수소탄보다 더 위력한 조선의 진짜힘에 대한 철학이 있다.

과연 그것이 간단한 일이였는가. 해체하여야 할 총전의 낡은 살림집들은 무려 수십동, 건설장주변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공사를 놓고 큰 산을 여러개 허무는것과 같은 일이라고 했다. 해체작업과 버력처리작업에만도 한달이라는 시간이 소비될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만리마속도창조에 용약 궐기해나선 려명전역의 전투원들은 그 한달을 단며칠로 주름잡으며 폭풍쳐 내달렸다. 그들은 이 방대한 작업을 하루빨리 해제끼기 위해 큰 산을 통채로 날려보내듯 곳곳에서 방향성조종발파를 진행하였다. 그것도 성차지 않아 어떤 건설자들은 밀려오는 폭찬마저 물리치며 함마와 정대를 휘둘렀다. 직사포를 고지에 끌어올리던 전화의 영웅들처럼 굴착기를 낡은 건물우에 통채로 올려놓고 해체전투를 벌린 건설자들도 있었다.

적들은 우리의 려명거리건설을 두고 이런 제재속에서는 실패할수밖에 없다고 비린청을 돋구었다. 그러한 때 려명거리건설자들속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추상같이 울려나왔던가.

제재라는 말에는 통나무를 켜 판자를 만든다는 뜻도 있다. 우리는 미국이나 적대세력들의 제재를 판자를 만들어 멸망의 무덤속에 들어갈 관이나 짜는 어리석은것으로밖에 여기지 않는다. 그 천겹만겹의 제재사슬을 만리마의 무쇠발굽으로 짓밟아버리고 자력자강의 무쇠주먹으로 족탕치며 우리가 어떤 신화적인 속도로 려명거리를 일떠세우는가를 똑똑히 보라!

려명거리건설자들은 제재와 핵전쟁소동, 려명거리건설불가능이라는 온갖 너두리를 휴지장처럼 뭉그러 력사의 쓰레기통에 처박으며 노도와 같이 진격하였다.

착공식이 진행된 때로부터 며칠 안되는 기간에 벌써 려명거리에서는 총전의 낡은 건물들이 해체되고 수십만㎥의 버력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야말로 번개같은 속도였다. 방대한 량의 기초굴착공사와 기초콩크리트치기공사에 진입하면서부터 려명거리건설장 곳곳에서는 아침과 저녁이 아니라 분초가 다르게 새라새로운 기적들이 창조되였다.

기초굴착량은 무려 백수십만㎥, 이만한 량의 흙을 적재량이 큰 화물자동차에 가득 싣는다고 보아도 8만여대분이나 되는 이 방대한 공사를 려명거리건설자들은 한주일 남짓한 기간에 끝내였다. 과연 이들은 토량만을 치워냈던가. 어디서나 불파의 격전이 벌어졌다. 양수기로 물을 퍼내는것도 성차지 않아 너도나도 바께쯔와 소쿠리를 들고 물속에 뛰어들고 기초굴착구간으로 자꾸만 흘러드는 물을 막기 위해 수십만개의 마대를 동원하여 방수벽까지 쌓으며 결사전을 벌리던 그 모습들을 우리는 지금도 잊을수 없다.

조건이 어려울수록 보폭을 더 크게, 이것이 그들의 심장마다에서 울려나온 격동의 웨침이였다.

선로 그자체가 위대한 승리였다면 려명격전은 그 승리의 힘으로 더 큰 승리를 안아오기 위한 초음속공격전이였다.

그 길에서는 불가능이라는 말자체가 통하지 않았다. 이들은 앞으로 다가올 장마철에 강에서의 골재채취가 어려워질것을 예견하여 륙상에서 백수십만㎥에 달하는 골재원천을 찾아냈다. 기대한 로천채굴장을 방불케 하는 이 골재채취장은 려명거리건설 전 과정에 실로 큰 역할을 하였다.

어려운 나라사정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있는 려명거리건설지휘부의 일군들과 우리의 과학자, 설계일군들은 불타는 애국의 마음을 안고 건설에서의 최량화방법을 적극 탐구하였다. 려명거리건설에서 수천t의 철근을 절약하면서도 건설물의 질을 안전하게 담보할수 있는 방도를 찾아낸것은 사실상 앞으로 전국의 모든 건설대상들에 널리 일반화하여 대단히 큰 실리를 얻을수 있는 참으로 혁신적인 발기였다.

력사적인 당 제7차대회를 최상의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해 려명거리건설자들은 지난해 4월말부터 본격적인 골조공사에 진입하였다.

건설장주변에서 사는 주민들은 아침출근길에 1층까지 오른 골조를 보았다면 저녁퇴근길에는 2층계선을 넘어선 골조를 보며 눈을 비비였다. 어떤 날에는 두개 층이 단번에 솟구쳐오른 사실에 깜짝 놀라 몇번이고 다시 바라본 사람들도 있었다. 그렇게 한나절이 지나고 하루가 바뀌고 며칠이 흐르며 살림집구획들이 자기 자태를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다층, 고층, 초고층살림집골조들이 붉은줄마냥 키돋음하며 솟구쳐오르는 려명거리건설장에서 굳이 경쟁도표를 찾을 필요가 없었다.

건설장적으로 하루평균 백수십세대의 살림집골조완성, 그야말로 놀라운 속도였다.

려명전역의 전투원들은 따라앞서고 따라배우며 경험도 부단히 교환하면서 날에날마다 새 기준, 새 기록을 창조해나갔다.

미래과학자거리건설을 비롯한 여러 대상건설에서 우리 군인건설자들이 창안해낸 통방식휘틀조립공법, 살림집 한개 층의 벽체와 층막휘틀을 통채로 조립하고 콩크리트타임을 단번에 진행하는 이 혁신적인 공법이 려명거리건설장에서 모든 시공단위에 널리 파급되였다. 조선인민군 김성력소속부대에서 종전에 1대씩 하던 철근가공을 5대, 15대 지어 25대나 한꺼번에 할수 있는 철근구부림기재를 창안하여 가공로력을 10분의 1로 줄이고 엘레베형철근운반기, 원통식모래치는기재들을 만들어 건설속도를 훨씬 높인 경험이 많은 시공단위들에 일반화되고있을 때 조선인민내무군 오영수소속부대에서는 한개 층의 골조를 올리는데 필요한 철근조립시간을 종전의 9분의 1로 줄이여 또다시 많은 사람들을 놀래웠다. 그런가 하면 룡산건설사단건설장에서는 혼합물바가지를 단번에 두개씩 자동차기중기로 들어올려 강선의 두대치기라는 말이 생겨났다.

골조공사속도를 높이기 위해 각 시공단위들에서는 주간작업조와 야간작업조를 따로따로 갈라 파도식으로 련속공격을 들이대기로 하였다. 하지만 지휘관들과 일군들은 그 전투작전을 변경시키지 않을수 없었다. 전투가 시작되자 주간작업조 성원들이 작업하는 현장에 야간작업조 성원들이 나타났던것이다. 한두명도 아니고 야간작업조의 모든 성원들이 너도나도 뛰어드는 바람에 지휘관들과 일군들은 그들을 제지시키느라 골머리를 앓았다. 그러나 무슨 말로 그들의 발걸음을 돌려세울수 있었으랴.

밤 0시, 창조의 하루를 보내고 또다시 창조의 새날을 맞이하는 그 시각 려명거리건설자모두에게는 어김없는 일과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금수산태양궁전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와 위대한 장군님께 자기들의 하루전투실적을 삼가 마음속으로 아뢰이는것이였다.

앞을 다투어 이룩되는 골조공사에서의 눈부신 실적을 안고 려명거리건설자들은 승리의 5월을 맞이하였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성대히 진행되게 될 4.25문화회관, 바로 그앞에 려명거리건설장이 있었다. 착공한지 불과 한달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에 자기의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기 시작한 려명거리건설장을 바라보며 당 제7차대회 참가자들은 우리 공화국의 자력자강의 위력에 대한 긍지를 한껏 새겨안았다. 일러마다에서 이룩한 70일전투의 눈부신 승리와 함께 그리도 가슴벅차게 만리마속도로 마주 오는 려명거리건설승리, 자력자강의 대승리를 눈앞에 그려보며 대회장에 보무당당히 들어섰다. 우리의 려명거리건설자들은 이렇게 당 제7차대회를 결사보위하였고 려명거리건설승리의 결정적돌파구를 자랑스럽게 열어놓았다.

려명거리를 만리마속도창조의 고향으로!

려명거리건설자들이 자기들의 전투장 곳곳에 가장 많이 써붙인 글발이 있다.

려명거리를 만리마의 고향으로!

려명전역의 전투원들이 공사초기부터 정대로 쏘아박듯 심장마다에 새겨안은 이 신념의 글발속에 오늘의 시대가 요구하는 만리마속도창조란 어떤것인가에 대한 대답이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몸소 위치를 잡아주시고 《려명거리》라는 이름까지 지어주신 격전장, 금수산태양궁전뜨락 가장 가까이에 일떠세우는 려명거리건설장에서 마땅히 오늘의 시대를 대표하는 만리마가 제일먼저 날아올라야 한다!

바로 이것이 건설에 참가한 군인들과 돌격대원들의 신념이였고 의지였다.

세인을 놀래운 비상한 건설속도에 대해 말할 때 려명거리건설자들이 오늘도 잊지 못하며 긍지높이 돌이켜보는 이야기는 얼마나 많은가.

그중에서도 70층살림집건설장에서 창조된 74일기적과 13일기적, 장산소하천이 흐르던 자리에 여러동의 건축물을 일떠세운 장산소하천기적은 려명전역에서 벌어진 만리마속도창조대전을 뚜렷이 대표하고있다.

돌이켜보자. 우리의 미려운 주인공들은 과연 어떤 불같은 투쟁으로 신화적인 건설속도를 창조하였던가.

우리 나라에서 가장 높은 초고층살림집으로 일떠선 70층살림집건설에는 지난 미래과학자거리건설때 53층살림집골조를 60여일동안에 일떠세워 비상한 건설속도를 창조하였던 부대를 비롯한 인민무력성아래 여러 부대들이 참가하였다.

공사량은 그때의 4배, 여기에 드는 철근만 해도 수천t, 살림집의 높이는 이백수십m, 기존공식을 놓고볼 때 골조공사에 필요한 날자는 200여일!

기초콩크리트치기에만도 웬만한 고층살림집 여러동을 일떠세우는데 필요한 자재가 들었고 한개 층의 골조를 형성하는데 일반살림집 4개 층분의 자재가 소비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건설과제의 방대함을 잘 알수 있다.

70층살림집공사실적에 따라 려명거리건설성과가 좌우된다는 비상한 자각을 새겨안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병사들에게는 종전관례나 경험이 통하지 않았다.

건설의 기계화비중을 높이고 시공의 전문화를 실현할데 대한 당정책을 백승의 보검으로 틀어쥔 우리의 군인건설자들은 공사속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 가능한 모든 공법을 총동원하였다. 압송기, 혼합기, 자동차기중기들과 만능탑식기중기가 집중배치되여 원쑤의 아성을 사정없이 짓뭉개며 돌진하는 대기계화군단의 진격소리마냥 건설의 동음이 우렁차게 울려퍼지는 광경은 종전의 다른 대상건설장들에서는 볼수 없었던 화폭이였다.

살림집의 층수가 올라갈수록 혼합물보장이 어려워지고 골조공사속도가 그만큼 떠지는것은 건설장에서 흔히 있을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70층살림집건설장에서는 이러한 일반리론이 그야말로 정반대로 되였다.

군인건설자들은 골조가 높이 솟구치는데 맞게 여러개의 압송기를 계단식으로 배치하여 혼합물보장속도를 계속 끌어올렸다. 전통의 여러 모서리들이 원기둥모양으로 설계되여있어 위틀조립조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하였지만 수십차례에 걸쳐 모의훈련을 하고 그 과정에 이룩된 경험도 서로 교환하면서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한 방도를 부단히 찾아 실천에 구현해나갔다.

적들은 70층살림집건설과정을 위성을 통해 지켜보며 이 초고층살림집건설이 결코 빨리 진행될수 없다고 별의별 악담을 다 해댔다. 하지만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병사들은 공사초기 한개 층의 골조를 올리는데 소비되던 시간을 36시간으로부터 24시간으로 단축시켜 많은 사람들을 놀래웠고 7월에 들어와서는 그것을 또다시 16시간으로 줄여 아침과 저녁이 아니라 분초가 다른 건설속도가 과연 무엇인가를 놈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었다.

최근 몇해동안 위성과학자주택지구며 미래과학자거리를 비롯한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우는 격전장마다에서 위대걸을 이어가며 인민군대의 비상한 공격속도에 대해 가슴뿌듯이 느껴온 우리로서도 살림집골조가 높아질수록 공사가 더 빨리 진척된 이런 속도는 처음이였다.

단 74일만에 70층살림집골조가 일떠선 신화적인 건설속도를 두고 미국의 인터네트통신 《NK NEWS》는 건설에서 제일 큰 대상인 70층초고층살림집골조공사가 완공되었다, 결과 공사가 시작된 때로부터 74일만에 초고층건물의 골조가 완전히 형성되였다, 이것은 12시간만에 한개 층씩 골조가 축조되였다는것을 의미한다고 보도하였다.

하지만 더 큰 기적은 그후에 일어났다. 수십동의 살림집들의 골조공사가 이미 결속되였던 지난해 8월부터 려명전역에서는 여러동의 고층건물과 봉사망들을 새로 일떠세우기 위한 대격전이 벌어졌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천리혜안의 예지로 려명거리의 중심축을 바로잡아주시고 새로 건물들을 건설하도록 위치를 정해주신 그 자리에는 장산소하천이 흐르고있었다.

그 새로운 건설과제를 바로 자기들에게 맡겨주시였다는 격동적인 소식에 접하였을 때 우리 군인들의 가슴가슴은 어떻게 높뛰였던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결심하시면 우리는 하천이 아니라 바다우에 아니 하늘에라도 집을 지을수 있다!

지상으로 흐르던 하천을 지하로 돌리는 일도 처음이였지만 그우에 건축물들을 건설하는것 또한 처음 보고 듣는 일이였다. 백두의 칼바람폭풍과도 같은 담력과 배짱으로 내달리는 우리 병사들의 앞길을 파헌 그 무엇이 가로막을수 있겠는가. 말 전소건설장에서나 들을수 있는 가물막이라는 말이 전투장 곳곳에서 울려나왔다. 그렇게 물길을 돌리자 이번에는 두터운 감탕층이 나타났다.

감탕층의 깊이는 무려 4m!

군인건설자들은 감탕층이 깊어 대형굴착기가 들어설수 없으면 메목을 무어 떠우고 그우에 건설장비들을 올려앉혔고 무려 아홉대의 대형굴착기가 감탕을 퍼내여 이어달리기를 하듯 서로 주고받는 건설장이 생겨 처음 보는 공법도 창안해냈다. 그것도 성차지 않아 장령도 군관도 병사도 마대를 들고 감탕속에 뛰여들었다. 장산소하천우에 여러동의 고층살림집과 봉사망들이 희한하게 일떠선 기적은 이런 불굴의 정신력에 의해 창조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병사들은 지난해의 74일기적과 장산소하천기적에 이어 올해에는 13일기적으로 련전련승을 안아왔다.

지난 1월 25일 려명거리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전체 건설자들이 최후돌격전에 산악같이 떨쳐일어나 마지막결승주로를 힘차게 달림으로써 려명거리건설을 태양절까지 무조건 완공하자고 열렬히 호소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70층살림집 외벽타일붙이기를 하루빨리 다그쳐 끝낼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도 주시였다.

대지를 박차고 하늘가로 치솟는 인공지구위성을 방불케 하는 70층살림집건설장에서는 무서운 비약의 폭풍이 휘몰아쳤다.

높이가 이백수십m를 헤아리는 70층살림집의 외벽타일붙이기는 보통의 고층, 초고층살림집들의 외벽타일붙이기와 대비조차 할수없이 방대하고 어려운 작업이였다.

그 전투의 시작은 지난 3월초, 전투기간은 20일!

타일을 붙여야 할 면적은 축구경기장을 여러개 합친것보다 더 컸다. 이 전투를 위해 병사들이 하나하나 준비한 작업발판은 무려 수백개, 그 수많은 작업발판들을 움직이는데 쓰인 바줄은 10여만m나 되였다. 작업에 필요한 각종 물동운반을 위해 40대가 넘는 대형권양기들이 가동하였으니 그 방대함을 또 무슨 말로 더 설명할수 있겠는가.

《인민복무전》, 《자력자강》, 《만리마속도》, 《대비약》, 《대혁신》, 《질은 병사의 량심》…

수십개도 아니고 수백개나 되는 표어들이 70층살림집의 외벽들을 꽉 채우다싶이 한 광경을 보며 매일 이곳으로 오가는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우리 군인건설자들이 전투에 앞서 자기들의 손으로 한자 또 한자 써서 작업발판마다에 게시하여놓은 표어들, 진정 그것은 당의 존엄사수정신, 사회주의수호정신으로 높뛰는 그들의 심장의 분출이였다.

3월이라고는 하지만 추위가 좀처럼 물러가려 하지 않고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였다. 그러나 자기들이 위치한 곳을 적들과 코를 맞대고있는 최전연진호와 같이 여기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야만적인 초강경제재에 매달리는 원쑤들의 머리우에 철추를 내리는 심정으로 전투에 떨쳐나선 인민군 군인들의 전진을 자연의 번덕도 결코 가로막을수 없었다.

어느 발판에나 지휘관들이 있었다. 가장 어렵고 힘든 모퉁이마다에 남먼저 어깨를 들이대는 그들의 이신작칙은 말없이 울리는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령소리였다.

3 면 으 로 계 속

위대한 만리마시대의 새로운 건설신화

성스러운 기념비를 세운 려명거리건설자들의 투쟁실록을 펼치고

2면에서 계속

식사하러 오가는 시간마저 아까와 아낀 공중에 매달린 발판우에서 선채로 운반식사를 한 병사는 누구였으며 날이 어두웠다고, 빨리 철수하라고 방송선전차에서 울려나오는 방송원의 절절한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하루과제를 100%, 200%가 아니라 300%로 넘쳐 수행하고서야 발판을 내린 병사는 또 누구인가.

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오른 속에서 당장 치료를 받으라는 동지들의 권고를 뿌리치며 전투과지를 떠나지 않은 병사도 있었다.

려명거리를 만리마의 고향으로!

이 글발을 조국과 인민앞에 다지는 선서의 한구절과도 같이 가슴깊이 새겨안고 투쟁한 군인건설자들은 100%, 200%와 인연이 없었다.

70층살림집 외벽의 온도가 영하를 기록하면 온도보장대책을 세워가며 작업을 계속하고 날이 어두워지면 불빛으로 전투현장을 밝히며 손에서 타일을 놓지 않은 그 수많은 전투원들속에 녀병사들도 있었음을 사람들이여, 부디 잊지 마시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관철을 위해 장령과 군관, 병사모두가 서로 어깨겯고 아찔한 허공중에 매달린 작업발판마다에서 한장 또 한장 타일들을 정성들여 붙여가는 모습은 전화의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 당신의 전사들이 있는 한 1211고지는 영원히 조국의 고지로 남아있을것이라는 맹세문을 올리고 목숨바쳐 실천한 영웅전사들의 모습 그대로였다.

군인가족, 불러볼수록 눈금이 찌릿이 젖어든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관철을 위해 철아격전을 벌리는 남편들과 병사들을 찾아 매일 전투장에 자신들을 세운 미더운 모습들.

과연 그들은 성의어린 물자들만 안고 왔던가. 군관들과 초키복무사관들은 병사들과 함께 작업발판마다에서 분초가 다르게 비약적인 타일붙이기실적을 기록하고 그들의 안해들은 남편들을 고무하여 붉은기를 휘날리며 노래를 부른 전투장의 광경은 눈물없이는 볼수 없는 격동적인 화폭이였다.

조건은 불리하고 때로 앞을 가로막는 위험한 정황들도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오직 하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지금이 시각도 70층살림집의 외벽타일붙이기 절속소식을 기다리고계신다는 일념으로 심장의 피를 펄펄 끓이며 새 기준, 새 기록을 끊임없이 돌파하였으며 20일로 계획하였던 70층살림집의 외벽타일붙이기를 7일이나 앞당겨 단 13일만에 결속하는 또 하나의 건설신화를 창조하였다.

지난 3월 15일 이른새벽 완공을 눈앞에 둔 려명거리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건설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려명거리야말로 만리마속도창조의 고향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렇다.

려명거리를 만리마의 고향으로!

진정 그것은 세상에 다시없는 인민의 지상락원, 행복의 별천지를 만리마속도로 일떠세우기 위해 군인들과 돌격대원들이 순간순간 다진 맹세였고 한치의 드팀도 없는 실천이였다.

인민의 힘, 이것이 조선의 국력이다

국력, 그것은 인민의 힘이다.

지금 이 시각도 적들은 위성을 통해 실시간으로 이 땅을 내려다보고있다. 한 나라, 한 민족을 지구상에서 영영 없애버리려는 야만적인 초강경제재와 봉쇄는 한두해도 아닌 수십년동안 계속되고있다.

사회주의와 제국주의간의 치렬한 전쟁의 현속인 이 격전에서 어쩌하여 우리 공화국은 다발적, 련발적인 승전포성을 계속 울려고있으며 반대로 적들은 계속 패배의 고배를 마시지 않으면 안되는가. 령토도 크지 않고 인구도 많지 않은 조선의 국력에 대하여 왜 적들은 아직까지도 가늠하지 못하고있는가.

대답은 명백하다. 조선의 수천만 인민이 지닌 힘을 모르기때문이다.

지난해 3월 우리 당이 려명거리건설을 선포하자 이런 극한상황에서는 실패할수밖에 없다고 떠벌였던 적들은 뜻하지 않은 자연의 대재앙을 가시기 위한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투가 개시되였을 때에는 려명거리건설에 어지간히 힘을 소비했기때문에 이 전투에서의 성과는 기대할수 없다고 뇌까렸다. 그와는 반대로 조국의 북변땅에 승리의 기발이 나붓기고 또다시 려명거리건설이 전개되자 이번에도 또다시 자연재해를 가시기 위한 투쟁에 조선이 많은 물적자원을 소비했기때문에 려명거리건설이 지연될것이라고 휘소리쳤다.

이것은 조선을 몰라도 너무 모르며 또 영원히 알수 없는자들의 넋두리였다.

해방후 기상관측이래 처음 보는 자연의 대재앙을 가시기 위한 북부전역에서도, 헌대건축거리의 본보기, 표준, 로동당시대의 선경거리를 일떠세우기 위한 려명전역에서도 우리는 자력자강의 눈부신 대승리를 안아왔다.

무엇때문에 우리 인민은 당에서 일단 호소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산악같이 떨쳐일어나는것이며 당에서 바라는 일이라면 사지판에도 서슴없이 뛰여들고 목숨도 바치며 결사관철하는것인가.

려명거리건설에 참가하였던 함경남도려단 함주군대대 시공검사원이였던 홍태성동무, 그는 지금 우리곁에 없다. 지난해 7월 김일성종합대학 15호기숙사 골조공사과정에 발생한 뜻밖의 정황속에서 10명의 돌격대원들을 안전하게 철수시키고 31살의 너무도 젊은 나이에 귀중한 생을 마치였다. 하나 그의 생은 결코 끝난것이 아니였다. 당의 대건설구상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한 격전장에서 남편이 흘린 피와 땀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 하는 그의 안해 김윤미동무가 수백점의 지원물자까지 안고 려명거리건설장에 달려왔다. 홍태성동무의 이름이 올라있던 돌격대원명단에 자기 이름을 대신 올리고 남편의 몫까지 합쳐 두몫, 세몫 일을 해제꼈다. 젊은 시절 방송원이였던 홍태성동무의 어머니도 아들이 섰던 전투장에서 마이크를 억세게 틀어잡고 줄기찬 화선선동으로 돌격대원들을 고무해주었다.

무엇때문인가. 왜 아들이 섰던 격전장에 머리희숙한 어머니가 달려왔고 남편이 못다 걸은 길을 안해가 이어갔는가.

누가 시켜서가 아니였다. 자기가 살 집을 짓기 위해서도 아니였다. 려명거리를 하루빨리 일떠세우는 길이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르는 길이고 너와 나 우리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사회주의륜짐을 세상이 보란듯이 더 굳건히 짓는 길이라는 엄숙한 자각, 바로 그것이 전화의 나날 전호가에서 사수가 쓰러지면 부사수가 대신 총을 잡듯 이 땅의 평범한 녀인들을 려명전역에 세운 정신력의 원천이였다.

려명거리건설장에 달려와 땀을 바치고 지성을 바친 사람들, 그 수많은 이름들을 어찌 수십, 수백권의 책에 다 적을수 있으랴.

불러만 보아도 가슴뭉클해지는 부부, 부자, 부녀, 형제, 자매돌격대원들은 그 몇이였고 녀맹돌격대, 야간지원돌격대원들의 대오는 또 몇이였던가. 려명거리건설장에서 제대명령을 받은 후 또다시 려명거리건설 평안북도려단에 입대하여 제대배낭을 풀어놓은 처녀돌격대원도 있었다.

당이 구상하고 설계한 일, 그것을 자기 가사처럼 여기는 인민이였다. 세상에 이런 인민이 또 어디에 있는가.

착공 첫날부터 준공을 하루 앞둔 날까지 이곳에 스스로 자신들을 세우고 건설자들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낮과 밤을 이어온 야전려발사, 야전신발수리공들, 건설장주변에 많은 이동세탁소, 옷수리봉사기지를 차려놓고 군인들과 건설자들을 위한 전의봉사활동을 진행한 아름다운 소행의 주인공들, 장산소하천감량과기적전에 참가한 군인건설자들에게 단 12시간동안에 수천개의 방수바지를 만들어 보내주고 억수로 쏟아지는 비발속에서도 70층살림집 외벽타일붙이기전투를 벌리고있는 군인건설자들의 젖은 솜옷들을 깨끗이 빨아 말리워준 녀인들, 이것이 조선의 려명거리건설사에 뜨겁게 아로새겨진 인민의 모습이였다.

《전화의 나날 조국의 고지를 지키던 심정이였습니다. 비록 육체는 말을 잘 듣지 않아도 어쩌지 여기에 와서 건설자들에게 전시카요도 불러주고 흙 한삽이라도 이 손으로 뜨면 고지로 기어오르던 적들에게 명중탄을 안기던 그때처럼 미국놈들에게 한방한방 총탄을 퍼붓는것만 같아 참으로 가슴이 후련해지군 하였습니다.》

취재길에서 만났던 머리흰 전쟁로병이 한 이 말을 지금도 잊을수 없다.

그렇다. 사회주의조국의 존엄사수전, 그 급발을 마음속에 새기고 온 나라가 달려왔고 온 나라의 모든 일터들이 만리마속도창조를 위한 격전으로 부글부글 끓어번졌다.

우리 당의 대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조국존엄사수전의 최전방에 총포탄을 보내주는 심정으로 증산투쟁, 창조투쟁, 돌격투쟁을 힘있게 벌려 각종 건재와 설비들을 최우선적으로 긴급생산보장함으로써 려명거리건설자들의 위훈의 밑거름이 되어준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천리마타일공장, 천리마킨재종합공장, 대안천선유리공장, 평양326전선공장, 안주뽐프공장, 문천발브공장과 화강석광산들을 비롯한 전국각지의 영웅적 집일성-김정일로동계급과 혁명적인 경제조직사업으로 그 어떤 제재와 봉쇄에도 끄떡하지 않는 우리 공화국의 무한한 잠재력을 남김없이 발휘한 내각과성, 중앙기관들, 도, 시, 군인민위원회 일군들의 헌신적노력을 당과 조국은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다.

우리는 그들도 당당한 려명거리건설자들이라고 부르고싶다. 아니 온 나라 인민이 려명거리건설자명단에 자기 이름을 새기고 투쟁하였다고 말하고싶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이 없이 보내는 못만 꼭같은 필체로 적혀있은 주소모를 하많은 소포의 주인공들, 자기 남편, 자기 아들, 자기 딸에게 보내는 심정으로 성의있는 지원물자들을 하나하나 모으고 모아 려명전역에 보내주고 건설자들에게 수많은 생일상도 마련하여 안겨준 모든 인민들에게 깊이 허리숙여 인사를 드리고싶다.

정녕 무심히 볼수 없다.

려명거리에 펼쳐진 푸른 잔디밭이며 그속에 뿌리내린 나무들과 꽃관목들…

지난 한겨울부터 려명거리건설장에서는 실로 이채로운 광경이 펼쳐졌다.

한평의 잔디밭, 한그루의 나무마다에 정히 씌워진 비닐박막덧집!

바로 그속에서 뜻깊은 태양절전으로 완공해야 하는 려명거리를 더욱 아름답게 단장할 수만그루의 나무들과 수십만㎡의 잔디가 겨울을 모르고 싱싱하게 자라났다.

지난해 려명거리건설초기부터 수도의 곳곳에는 《려명거리잔디》라는 표말이 붙은 튜다른 잔디밭들이 나타났었다. 아침과 저녁이면 잔디를 심은 곳으로 달려와 물과 비료를 주고 김도 매주며 정성을 다하던 시민들, 한겨울에도 비닐박막을 씌워 싱싱하게 자래운 잔디를 소중히 안고 그들은 이곳으로 달려왔다.

어찌 잊을수 있으랴. 언땅을 까고 불을 피워 녹이며 한㎡ 또 한㎡ 잔디를 심던 그 모습들을. 자신들의 손은 얼지언정 잔디가 상할세라 비닐박막으로 덧집을 정히 만들어 씌운 군인들과 인민들이였다.

자기들이 키워낸 잔디를 더욱 푸르싱싱하게 자래우기 위해 하루에도 수십리길을 몇번이나 걸은 수도교외의 주민들, 심은 나무가 병이 들세라 비료와 약물을 주입하며 억센 뿌리를 내리게 한 군인들과 인민들, 그들속에 녀병원들만도 근 30만명이나 된다는 한가지 사실만 놓고서도 려명거리건설장에로 달려온 온 나라 인민의 뜨거운 마음을 느낄수 있다.

참으로 려명거리에 뿌리내린 한그루의 나무, 한포기의 잔디에도 인민의 행복이 넘쳐날 새 거리에 꿈을 앞당기기 위하여 헌신의 한해를 걸어온 평양시민들을 비롯한 온 나라 천만군민의 애국충정의 열기가 소중히 깃들어있다.

당의 구상과 의도를 절사관철하기 위해 서라면 옹근 하나의 거리를 통채로 온실로 만들어서라도 자연의 계절을 앞당겨 푸른 주단을 펼치고 꽃바다가 설레이게 하는것이 바로 우리 인민의 불타는 충정이라는것을 려명거리의 봄은 우리에게 말없이 가르쳐주고있다.

수령의 천위용위전, 사회주의조국의 존엄사수전을 자기 가사로, 생명으로 여기는 이런 인민의 힘은 무한대하다. 이것이 바로 적대세력들의 정수리에 떨쳐발의 혜복탄을 터뜨린것보다 더 무서운 조선의 려명신화를 안아온 힘에 대한 대답이다. 인민의 힘, 이것이 바로 조선의 국력이다.

원수님 따라 천만군민이여, 더 힘차게 앞으로!

려명거리건설과정은 단순히 하나의 현대적인 거리를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이 아니였다.

한걸음에 만리를 내닫는 신화적인 건설속도로 그처럼 방대한 거리를 270여일만에 일떠세운 려명격전의 주인공들은 보통날, 보통때 2,700여일을 생활한것과 대비조차 할수없이 억세게 성장하였다.

조선의 자력자강과 온갖 적대세력들의 야만적인 초강경제재와의 가장 치렬한 전쟁이 벌어졌던 바로 이곳에서 전화의 나날 한치의 땅을 위해 목숨을 바친 1211고지용사들과 351고지용사들, 락동강용사들과 월미도용사들과 같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선봉투사들이 수없이 태어나고 사회주의와 제국주의간의 치렬한 대결전에서 영원히 승리만을 떨칠 용사들이 미려옵게 자라난것이야말로 또 하나의 빛나는 전승신화가 아닐수 없다.

만리마속도창조의 고향인 려명전역은 수많은 만리마선구자들을 키워낸 대학이였다.

혁명적군인정신의 소유자들인 우리 인민군군인들을 보라!

지난해에 입대하여 려명거리건설장으로 달려왔던 신입병사들이 단 한해사이에 려명전역과 북부전역, 이 두 전쟁의 참전자로, 두차례나 세상을 깜짝 놀래운 신화의 중심에 거연히 선 미더운 주인공이 되였다.

이들은 수십kg의 세멘트와 모래가 담긴 마대를 지고 삼복의 무더위속에서 70층살림집 만장까지 하루에도 무려 14번이나 오르내렸고 쏟아져내리는 비물에 밥을 말아먹고 선채로 말똥잠을 자면서, 한겨울의 강추위속에서도 봉사망들을 통채로 비닐덧집으로 씌우고 그속에서 난로까지 피워 온도를 보장하면서 한㎡ 또 한㎡ 미장작업을 하였다. 그렇게 하루하루 완공의 시간을 앞당기는 속에서 사회의 시공단위들이 말은 여러 대상공사장들에도 스스로 달려나가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을 남김없이 떨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병사들은 려명전역에서 창조물들만 일떠세운것이 아니였다. 공사가 시작된 때로부터 마지막날까지 《인민을 돕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건설장주변에서 사는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을 끊임없이 찾아 위문전지와 성의어린 물자도 안겨주고 노래도 불러주며 그들을 적극 고무해준 인민군군인들!

병사는 총대로만 조국을 지켰던가. 이들은 려명전역에서 자기들의 피와 땀으로 사회주의의 주체가와도 같은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를 지었고 평화로운 나날에도 조국과 인민을 위해 한목숨 서슴없이 바칠 각오를 천백배로 굳혔다.

인민군군인들만이 아니라 려명거리건설에 참가한 일군들과 건설자들, 지원자들모두가 만리마시대정신을 자기 손으로 창조하였고 눈앞의 현실로 직접 체험하였으며 당이 바라고 시대가 바라는 백절불굴의 인간들로 자라났다.

건설혁명의 보람찬 진군길에서 불꽃튀는 백열전을 벌리며 대를 이어 조선을 빛내일 위대한 맹세가 어려있는 통남산입대를 최한한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한 대외건설지도국과 속도전청년돌격대, 철도성, 수도건설위원회, 원유공업성을 비롯한 주요시공단위들과 평양시와 각 도돌격대 전투원들, 이제 이들은 당과 조국이 맡겨주는 성스러운 격전장마다에서 또다시 려명신화창조자, 그 값높은 영예를 빛내일것이다.

수도건설위원회의 한 일군의 말을 들어보자.

《나는 지난 시기 많은 대상건설에 참가하였고 또 건설경험도 어느 정도 있다고 자부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려명거리건설에 참가하여 정신을 번쩍 차렸습니다. 마치도 새로운 건설대학을 나온것만 같은 심정입니다. 인민군군인들처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어떤 일이 있어도 절사관철하겠다는 정신만 투철하면 강우에도 집을 지을수 있고 종전에 없던 공법들도 창안해낼수 있으며 백날을 걸릴, 하루로 주름잡을수 있다는것을 깊이 느끼게 되였습니다.》

려명거리건설장을 두고 많은 사람들은 만리마선구자대학이라고도 이야기했다. 만리마시대정신이 말이나 글로써가 아니라 눈앞의 현실로 세차게 맥박치는 건설장은 그대로 수많은 전투원들과 지원자들에게 만리마시대정신을 말없이 가르쳐준 《교원》이였다.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초급당위원장 리문명을 통내는 건축물들도 있다 하라. 하지만 당에 대한 믿음과 사회주의조국사수의 정신, 티없이 순결한 애국의 피와 땀이 어린 이러한 거리, 이러한 건축물들은 바로 수령, 당, 대중이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거대한 위력으로 전진하는 조선에서만 일떠설수 있다.

려명거리, 이는 우리 천만군민이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천겹만겹으로 굳게 뭉쳐 만리마속도로 비약하며 다달은 또 하나의 승리의 봉우리, 력사의 기념비이며 신화적인 건설속도창조만이 아닌 조선의 영원한 승리를 바라볼수 있게 하는 력사의 전망대이라고 우리는 소리높이 웨친다.

고난과 시련의 먹장구름이 아무리 기승을 부리며 밀려들어도 저 하늘의 찬란한 태양만은 절대로 가리우지 못하는 법이다. 려명은 태양의 눈부신 빛발, 태양의 위대한 승리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이 행성의 온갖 어지러운 흙먼지회오리바람을 백두의 칼바람폭풍으로 가차없이 쳐갈기며 세상이 부러워하는 려명거리를 일떠세우던 나날 우리 천만군민은 그이의 걸심과 령도는 곧 백전백승이고 조선의 승리, 사회주의완전승리도 과학이며 적들의 패배 또한 과학이고 피할수 없는 숙명이라는 철리를 천만배로 새겨안았다.

찬란한 조선의 려명이여, 조선의 승리, 사회주의승리의 상징으로 더 밝게, 더 창창히 빛나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천만군민이여, 만리마에 더 박차를 가하며 신심드높이 앞으로!

* *

만리마속도창조의 고향인 여기 려명전역에서 우리의 사회주의강국건설력사에 특기할 페지로 아로새겨질 거창한 창조의 대격전이 끝났다.

려명거리의 새벽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걸으시였던 그 길을 우리 삼가 따라걸으며 동리오는 내 조국의 려명을 한가슴에 안아본다.

거리는 조용하다. 하지만 너무도 크나큰 격정이 우리의 심금을 쿵쿵 울려준다.

하늘을 찌를듯 장쾌하게 솟구쳐오른 초고층, 고층살림집들을 비롯한 모든 창조물들은 어찌 보면 발사순간을 기다리는 인공지구위성들같고 어찌 보면 21세기를 대표하는 최첨단공장들같다. 다시 보면 우리 인민들이 누렸 사회주의문명의 활륜경같이 뜨겁게 안겨온다.

이제 사회주의강국건설이 승리하는 그날에 가서도 아니 오늘의 이 신화적승리가 력사속의 갈피로 남을 먼 후날에 가서도 우리 세대와 우리의 후손들은 만리마속도창조의 고향인 이 거리를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다.

려명거리의 상징인 70층살림집, 자력자강대승리의 기념비와도 같이 그리도 장쾌히, 그리도 높이 솟구쳐오른 지 웅장화려한 건축물이 마치 만리마동상과 같이 숭엄하게 안겨온다. 위재길에서 만났던 평범한 군인들과 돌격대원들, 나어린 소년단원으로부터 전쟁로병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주인공들이 하늘을 찌를듯 치솟은 초고층살림집만장에 군상을 이루고 서있는것만 같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이 모셔져있는 만수대언덕아래에는 천리마동상이 있다. 혁명의 준엄한 년대마다 대고조의 불길로 당과 수령을 결사옹위해온 천리마시대 인간들의 후손들은 오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뜨락 가장 가까이에 만리마시대의 상징과도 같은 70층살림집을 비롯한 기념비적건축물들을 일떠세움으로써 수령결사옹위의 억척의 성벽을 쌓았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백승의 령도따라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전진하는 사회주의 우리 조국의 축도를 세계가 보란듯이 이 땅우에 금문자로 새겨넣었다.

일심단결의 힘, 자력자강의 힘!

이 무궁무진한 불가항력적인 위력을 계속 폭발시키며 우리 당과 천만군민은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에서도 기어이 승리자가 될것이며 제2, 제3의 려명거리들도 더 훌륭히, 더 빨리 일떠세울것이다.

번영하라, 조국이여!

여기서 우리는 전진하는 사회주의의 강용한 기상을 본다.

위대한 자강력제일주의 만세!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새로운 건설신화, 주체조선의 일심단결 만세!

글 본사기자 김충성
사진 본사기자 리명남

단위의 특성에 맞는 방법론을 찾아쥐고

주체사상탑개선분관리소 초급당위원회에서

얼마전 주체사상탑개선분관리소가 2중3대혁명붉은기단위의 영예를 지니였다. 궐기기간 관리소는 70여만명의 인민군군인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30여만명의 외국인, 해외동포들에게 위대한 수령님들의 위대성과 불멸의 혁명업적을 널리 해설선전하였으며 풍기압축기개조를 비롯한 백여건의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창안도입하여 주체사상탑과 개선분을 더 잘 보존관리하는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비결은 초급당위원회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단위의 특성에 맞게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잘해온데 있다.

그러면 초급당위원회는 어떤 방법론을 구현하였는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얼마나 힘있게 벌어지고 훌륭한 열매를 맺는가 하는것은 우리 당일군들이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어떻게 불러일으키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우선 종업원들의 가슴마다에 일터에 대한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깊이 새겨주기 위한 사업을 방법론있게 진행하였다.

주체사상탑개선분관리소에는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어려있다. 또한 주체사상탑과 개선분을 찾는 우리 인민들과 인민군군인들, 해외동포들과 수많은 외국의 벗들에게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과 위대한 수령님들의 위대성을 널리 선전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단위의 특성에 맞게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종업원들속에 영광의 일터에서 일한다는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깊이 새겨주기 위한 사업을 중시하였다.

초급당위원장으로 갓 임명된 김영길동무는 어느날 종업원들에 대한 정치사업방향을 놓고 생각이 깊었다.

초급당위원회에서 작성한 다양한 형식과 방법의 정치사업계획은 그만하면 괜찮다고 할수 있었다.

하지만 초급당일군은 그것으로 만족할수 없었다.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맡은 일에서 혁신을 일으키게 하자면 어떤 정치사업이 더 필요한가. …)

정치사업방법을 모색하던 그는 지난 시기 보존작업만을 비롯한 일부 작업반성원들이 취미로 하던 작품창작을 관리소적인 사업으로 전환시킨다면 그 과정을 통해 종업원들의 일터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높여줄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였다.

이 의견은 소장 한정희, 부소장 원일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후 초급당위원회는 이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관리소구내에 금직한 소개판을 만들어놓고 작업반들에서 당선된 우수한 작품들을 게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김형직사범대학 교원들을 초빙하여 창작강의를 자주 진행하도록 하는것과 함께 관리소적인 현상모집을 조직하여 종업원들이 이 사업에 너도나도 떨쳐나서도록 하였다.

실효가 컸다.

종업원들은 창작과정을 통하여 단위에 깃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더욱 깊이 알게 되였고 이런 영광의 일터에서 살며 일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새겨안고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해나가게 되였다.

이 나날 관리소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 자기들이 창작한 문학작품을 올리는 크나큰 영광을 지니게 되였다.

이밖에도 단위에 깃든 절세위인들의 령도업적을 내용으로 하는 예술소품공연을 자주 조직하고 연혁소개실과 혁명사적교양실을 비롯한 교양거점을 더 훌륭히 꾸리여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벌리는 등 종업원들속에 일터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기 위해 진행한 사업은 많다.

초급당위원회의 사업에서 주목되는것은 다음으로 일군들과 종업원들을 높은 실무적자질을 갖춘 실력가들로 준비시키는데 큰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둔것이다.

위대한 주체사상, 선군혁명사상과 당정책을 해설선전하여야 하는 강사들에게 있어서 실력제고는 그 실효를 담보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만년대계의 건축물들과 설비들을 잘 보존관리하는데서 관리원들의 과학기술실력을 높이는것 역시 중요하다.

여기로부터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과 종업원들속에서 실력전의 된바람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나갔다.

여기서 잘한것은 긍정적소행들을 적극 찾아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짜고든것이다.

한 신입강사가 짬시간마다 오랜 강사들에게서 강의술과 그 경험을 배우고 그것을 련마하기 위해 밤을 밝혀가며 아글타글 노력하고있다는 자료가 제기되였을 때 초급당위원회는 그의 모범을 일반화하기 위한 경험발표회를 조직하였다.

그의 경험토론이 강사들과 종업원들에게 준 어은은 컸다.

주체사상탑강사로 내세워준 당의 크나큰 믿음을 생각하면 쉽게 잠자리에 들수 없어 밤늦도록 강의술을 부단히 련마하였다는 그의 이야기는 강사들과 종업원들속에서 당사상전선을 지켜선 책임과 임무를 자각하고 실력전의 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게 한 좋은 계기로 되였다.

공훈사적강사 진옥순, 책임강사 홍경실동무를 비롯한 오랜 강사들이 대학을 갓 졸업한 신입강사들을 한명씩 맡아 실무적자질을 높여주었을 때 그 소행을 널리 소개선전한 사실, 강의합평회와 경험교환회를 비롯한 여러 모임들을 자주 조직하고 거기에서 우수한 강사들을 적극 내세워준 사실, 과학기술보급실을 잘 꾸리고 그 운영을 짜고들어 종업원들속에서 가치있는 기술혁신성과들이 이룩되였을 때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영예등록장에 등록하고 혁신자축하모임을 비롯한 여러 계기들에서 높이 평가해준 사실…

이 과정에 사상, 기술, 문화혁명수행에서는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되게 되였다.

이곳 초급당위원회 경험은 각급 당조직들이 자기 단위의 특성에 맞는 방법론을 찾아쥐고 그것을 실천에 적극 구현할 때 대중운동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최영길

최준경동지의 서거에 대한 부고

김일성상수상자이며 로력영웅인 공훈국가합창단 고문작가 최준경동지는 폐암과 당뇨병의 합병으로 주체106(2017)년 4월 28일 5시 71살을 일기로 애석하게도 서거하였다.

최준경동지는 한생 혁명의 군복을 입고 당과 수령을 보위하는 수많은 명가사들과 시작품들을 창작하여 우리 당사상사업과 주체예술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재능있는 창작가이다.

주체34(1945)년 6월 15일 평안북도 녕변군에서 태여난 최준경동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품속에서 유능한 군인작가로 성장하여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와 음악정치를 충직하게 받들어왔다.

동지는 오랜 기간 혁명군대 예술부문에서 사업하면서 노래 《조선의 장군》, 《최고사령관동지 건강을 축원함》,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 《축복받은 나의 삶》, 《내가 지켜선 조국》, 《내 나라 제일로 좋아》를 비롯한 280여편의 명가사들과 《혁명군가와 함께 천만리》 등 500여편의 시작품들을 창작하여 주체문학예술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고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분출시키는데 기여하였다.

동지는 위대한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당의 령도에 무한히 충실하였다.

최준경동지는 비록 서거하였으나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세운 그의 공적은 길이 남아있을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주체106(2017)년 4월 28일

희천초등학원, 중등학원 개원식 진행

어머니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에 떠받들려 아이들의 웃음소리, 행복의 노래소리가 온 나라 방방곡곡에 끝없이 울려퍼지는 속에 희천초등학원, 중등학원이 개원되였다.

희천시 지신천기슭에 특색있게 건설된 학원들에는 다기능화, 정보화된 교실들과 소년단실, 실험실습실 등이 있는 교사들과 기숙사, 수영장, 물놀이장, 체육관을 비롯하여 교육 및 생활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져있다.

희천초등학원, 중등학원 개원식이 28일에 진행되였다.

판계부문 일군들, 학원교직원, 원아들과 건설자들, 희천시인의 근로자들이 개원식에 참가하였다.

개원사를 김재룡 자강도당위원회 위원장이 하였다.

연설자는 희천초등학원, 중등학원이 행복동이들의 궁전으로 일떠서게 된것은 원아들의 친부모가 되시여 뜨거운 정을 부어주시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후대관을 그대로 지니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대해같은 사랑과 은정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라고 강조하였다. 어머니당의 후대사랑을 높이 받들고 도에서는 풍치수려한 곳에 학원부지를 정하고 강력한 건설력량을 편성하였으며 설비, 자재들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면서 공사를 힘있게 밀고나갔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희천시안의 일군들과 로동계급, 녀맹원들이 한사람같이 떨쳐나 10여동의 건물을 단숨에 일떠세우고 군민협동작전으로 학원주변환경을 일신시켰으며 수많은 교육기자재들과 의료기구 등을 성의껏 마련해준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을 떠메고나갈 앞날의 주인공들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받들어 학원의 교직원들이 원아들을 앞날의 조선을 떠메고나갈 계승자로 억세게 키워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학원운영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원만히 풀어주며 원아들을 위한 일에 누구나 발벗고나서는것이 하나의 사회적기풍으로 되게 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학원의 원아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친어버이정을 언제나 가슴깊이 간직하고 학습과 조직생활을 잘하며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한 과학기술인재로, 튼튼한 체력을 소유한 미래의 주인공으로 준비함에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자력자강의 위대한 승리로 만리마선구자대회를 빛내이기 위한 투쟁에서 가직과 위훈의 창조자가 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개원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새로 건설된 학원들의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무쇠철마와 함께 영원히 주타격전방에서

곽산군 관상협동농장 부부뜨락또르운전수들인 홍성준, 김정순동무

불빛무르녹던 34년전 4월초 어느날 관상벌 한가운데서 발동소리 유장한 뜨락또르곁에 선 처녀에게 총각은 말했다.

《난 일생을 뜨락또르와 운명을 함께 하겠소.》

《저의 마음도 같애요. 이 무쇠철마와 같이 영원히 거세차게…》

기름내 풍기는 손과 손을 마주잡는 처녀와 총각, 그들이 바로 나서자란 고향땅을 지켜가며 사랑을 맺은 20대의 홍성준동무와 김정순동무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바쳤는가라는 물음에 늘 자신을 비추어보면서 애국의 마음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두 내외가 뜨락또르를 함께 타는것은 결코 헐한것이 아니였다. 군농업기능공학교(당시)를 졸업하고 뜨락또르운전수자격을 받았다고 했지만 김정순동무에게는 아직 모든것이 원만하지 못했다. 게다가 어린아이까지 달린 몸으로 육중한 뜨락또르를 몰아간다는것은 여간만 힘에 부치지 않았다.

홍성준동무는 콘덴기재에 대한 파악이 부족한 안해가 뜨락또르를 부단히 매만지면서 모든 구조와 성능을 파악하는것이 좋을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남편의 속마음을 헤아린 김정순동무는 페히 응해나섰다.

《만대없어요. 자꾸 손이 가면 그만큼 기술기능도 높아지겠으니 말이에요.》

다정한 부부는 오손도손 운전기술에 대해 주고받으며 논밭갈이를 다그치고 낡은 뜨락또르를 새것처럼 만들어놓았다.

두눈이 휘둥그래지는 농장일군들과 뜨락또르운전수들에게 홍성준, 김정순부부는 약속이나 한듯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67(1978)년 1월 전국농업대회에서 농촌로동계급의 모범가정으로 높이 평가하신 룡연군의 9명 기계화가정에 대하여 이야기하군 하였다. 룡연군 룡호리의 박정국, 정연화부부처럼 어버이수령님과 우리 당에 기쁨을 드리자고 그들은 생각하였던것이다.

이런 간절한 마음안고 해마다 150정보이상 논밭을 갈아제끼면서 뜨락또르의 카동률과 리용률에서 농장적으로 제일 앞자리를 차지하였다.

28년전 홍성준동무가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지닌데 이어 이듬해 7월에는 김정순동무가 입당하였다. 홍성준동무도 김정순동무도 붉은 당기를 우러르며 한생토록 농촌기계화초병의 영예를 빛내여갈것을 굳게 다짐했다.

고난의 시기에도 그들부부는 당앞에 다진 맹세를 변함없이 지켜왔다. 그들은 자체로 뜨락또르다이야들과 수십점의 부속품들을 마련하여 해마다 뜨락또르대렬검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10여년전 4월 리당위원회에 갔다 돌아오는 홍성준동무의 귀전에서는 한대의 뜨락또르가 아니라 농장의 18대 뜨락또르를 맡아볼것을 기대한다고 하던 리당일군의 말이 종처럼 떠나지 않았다. 기계화작업반 기술원사업을 맡게 된 남편에게서 사연을 들은 김정순동무는 흔연히 말했다.

《그것이 혁명의 요구이고 농장의 래일을 위한것이라면 조금도 주저하지 말아야 해요. 우리 임당하던 날 당앞에 다진 맹세를 언제나 잊지 말자요.》

뜨락또르 한대보다 농장뜨락또르들을 생각하며 홍성준동무는 온 농장을 메주밟듯 다니며 만가동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쳤다.

남편이 운전수들과 자리를 같이하고 기관, 연료통크, 기계장치, 조종장치 등 모든것을 차근차근 배워줄 때 김정순동무는 사랑하는 뜨락또르의 발동소리를 더 높이 울리며 모든 영농공정에서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군 하였다. 당에서는 이러한 그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이 모셔진 시계표창을 안겨주었다.

그날 홍성준동무와 김정순동무는 평양하늘을 우러르며 당의 믿음에 더 높은 실적으로 보답하자고 다시금 약속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이 깃든 뜨락또르를 맡게 된 김정순동무는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고 합리적인 운전방법을 받아들여 그 성능을 항상 최고수준에서 보장하였다. 식사시간마저 아까와하고 잠시라도 논밭갈이를 더 하기 위해 물마시는것도 사양하는 그를 누구나 칭찬하였다.

그러던 김정순동무가 몇해전 불치의 병에 걸리게 되였다.

김정순동무는 가슴이 미여지는것만 같았다. 지나온 나날들이 돌이켜졌다.

불과 몇달전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에 참가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을 지니였던 그날이며 30여년전 봄날 농촌기술혁명의 선구자로 한생을 살자고 남편과 약속하던 일, 어버이수령님의 존함이 모셔진 시계의 초침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임당할 때의 맹세를 지켜가자고 남편의 두손을 부여잡고 나누던 이야기, 공훈뜨락또르운전수의 영예를 지니던 감격 등 어느 하나도 잊을수 없는것이였다.

그로부터 얼마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김정순동무는 미소를 머금은채 강잉하게 병원문을 나섰다. 이런 그를 눈물속에 바래워주는 평안북도산원 일군들과 의사, 간호원은 불덩이를 안은것 같았다.

수십년전 어버이수령님께서 논두렁길을 걸으시는것이 가슴에 맺혀와 농촌기술혁명의 선구자가 될것을 고향의 청년과 약속하고 농촌기계화초병이 된 김정순동무, 보배 체소하고 정법한 농촌녀성이나 그의 정신세계는 얼마나 아득한 경지에 있는것인가.

불치의 병이라는 진단을 받고서도 결연히 자기의 뜨락또르에로 떠나가는 김정순동무와 같은 인간들이 우리 당이 키운 녀성혁명가들인것이다.

지난 기간 함께 뜨락또르를 타면서 농촌기술혁명수행에 적극 이바지해온 그들부부는 인민군대를 적극 원호하였으며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을 위해 좋은 일을 수많이 찾아하였다.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장과 함북도 북부피해복구건설, 도초등학원건설장 등 사회주의건설장들을 적극 지원하였다.

김정순동무는 불치의 병으로 진단을 받고서도 지난 4년세월 어느 하루도 뜨락또르곁을 떠난적이 없었다. 남자들도 다루기 힘들어하는 뜨락또르를 살붙이처럼 어기면서 남들보다 훨씬 많은 작업량을 해제꼈다.

우리와 만난 홍성준, 김정순부부는 말했다.

《우리 집사람은 영원히 뜨락또르를 떠나지 못합니다.》

《그럼요. 뜨락또르는 우리 부부의 사랑이고 혁명초소입니다.》

본사기자 김치곤

태양절경축 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 페막

우리 인민들과 체육인들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4월 3일에 개막되였던 태양절경축 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가 페막되였다.

이번 경기대회에서 4.25체육단, 조선인민군 국방체육단, 조선체육대학 남, 녀선수들이 수영, 사격, 력기종목들에서 공화국 새 기록을 세웠다.

팀의 진출적의도를 잘 살려 모든 경기들을 자신만만하게 운영해온 4.25체육단 선수들이 롱구종목의 남, 녀경기들에서, 소백수체육단 남자선수들과 평양체육단 녀자선수들이 배구종목의 경기들에서 우승하였다.

롱구경기에서는 압록강체육단 남자선수들과 기관차체육단 녀자선수들이 각각 2등을, 기관차체육단 남자선수들과 평양체육단 녀자선수들이 각각 3등을, 배구경기에서는 압록강체육단 남, 녀선수들이 각각 2등을, 평양체육단 남자선수들과 형제산체육단 녀자선수들이 각각 3등을 하였다.

페막식이 28일 청춘거리 롱구경기관에서 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와 리룡남내각부총리, 판계부문 일군들, 체육인들, 시내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공화국 새 기록을 세운 선수들에게 메달이 수여되였다.

롱구, 배구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단체들과 선수들이 우승컵과 메달을 수여받았다.

페막사를 김일국체육상이 하였다.

연설자는 이번 경기대회는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뜻깊게 경축하며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만리마속도창조대전에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을 힘있게 고무추동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고 언급하였다. 모든 선수들과 감독들, 일군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혁신적성과들을 이룩함으로써 만리마선구자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를 더 많은 금메달로 빛내여나갈데 대하여 그는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최룡해동지가

청년돌격대 자력자강성과전시회장을 돌아보았다

【평양 4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가 청년돌격대 자력자강성과전시회장을 돌아보았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올해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피끓는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청년돌격대원들은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효률이 높은 우리 식의 건설설비들과 기공구들을 창안도입하고 새로운 과학기술성과들을 이룩함으로써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다그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최룡해동지는 전시회장을 돌아보면서 자강력제일주의기치높이 미제를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을 짓부시며 대고조전투장마다에서 만리마시대의 영웅신화를 창조하고있는 청년돌격대원들을 고무하였으며 청년들이 국산화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림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제13차 전국기계설계축전 개막

【평양 4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제13차 전국기계설계축전이 개막되였다. 기계설계작성의 과학화, 콤퓨터화를 높은 수준에 끌어올리는데 이바지하게 될 축전에는 전문설계기관, 교육, 과학연구기관을 비롯하여 110여개 단위의 설계가, 교원, 연구사, 기술자, 3대혁명소조원들이 참가하였다.

축전에는 기계공장들의 현대화를 다그치며 인민경제 여러 부문 생산공정들의 공업화, 과학화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580여건의 설계, 기계제품형태도안들, 설계지원프로그람들이 출품되였다.

축전기간 설계의 과학화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차원설계경연과 현상모집이 있게 된다.

기계설계발전추세에 대한 강의와 첨단설계자료, 전시품들에 대한 기술교류와 봉사도 진행한다.

개막식이 28일 과학기술전당에서 있었다.

여기에는 전광호내각부총리, 리종국기계공업상, 판계부문, 기계설계, 교육, 과학연구기관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개막사를 전광호부총리가 하였다. 연설자는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받들고 기계설계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자력자강의 정신력을 높이 발휘하여 고도로 자동화, 로보트화된 기계설비들의 설계를 내놓은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모든 참가자들이 이번 축전을 통하여 모든 설계를 3차원, 4차원, 5차원으로 할데 대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기술교류를 더욱 심화시켜 나라의 기계제작기술을 첨단수준에 올려세우는데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축전장을 돌아보았다.

괴뢰보수패당의 시녀가 되여 반공화국모략날조선전에 매달리는 추악한 쓰레기언론들에 엄중히 경고한다

조선기자동맹 중앙위원회 대변인성명

지금 우리 조국땅에는 위대한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창조와 변혁의 대진성기가 펼쳐지고 인민의 꿈과 리상이 찬란한 현실로 꽃펴나고있다.

우리를 압살하려는 원쑤들의 정수리에 철퇴를 내리며 려명거리가 사회주의강국의 불가항력적인 위력의 상징, 사회주의문명이 응축된 리상거리로 솟아오르고 수도 평양과 전국의 모든 도들에 훌륭히 일떠선 유아원과 애육원, 초등학원, 중등학원들을 비롯한 우리 당의 인민사랑, 후대사랑이 뜨겁게 넘쳐나는 곳곳마다에서 인민이 터쳐올리는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만리창공에 끝없이 메아리치고있다.

그 무슨 《제재효과》를 떠들며 개꿈을 꾸다가 우리 공화국의 이 눈부신 현실앞에서 눈깔이 뒤집혀지고 닭꽃핀 개 지붕처다보는 격이 된 괴뢰보수패당은 어떻게 하나 그것을 짜아내리고 먹칠해보려고 터무니없는 외곡날조소동을 벌려놓고있다.

보수패당이 짜놓은 각본에 따라 이 비렬한 모략광대극을 연출하고있는 추악한 무리들이 바로 쓰레기매문언론들이다.

괴뢰사이비언론들은 려명거리가 일떠서고 새집들이경사로 흥성이고있는데 대해 《짐을 무상으로 준다고 하지만 암암리에 팔고산다.》느니, 《전기사정으로 승강기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할것》이라느니, 《호화주택에 대한 입사행사는 선전용》이라느니 하는 고약한 소리들을 늘어놓으며 악랄하게 헐뜯어대고있다.

그런가하면 1990년대 우리가 고난의 행군을 하던 시기 괴뢰들이 우리를 비난하기 위해 온갖 비렬하고 너절한 수법으로 조작날조해낸 사진들과 통영상자료들을 가지고 마치 지금의 우리 현실인듯이 외곡보도하면서 그 무슨 《북인권상황》이니, 《북주민의 삶》이니 하는 궤변들을 줴쳐대고있다.

그야말로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을 치솟는 분노와 복수의 피로 끓게 하는 극악무도한 정치적도발이고 참을수 없는 우롱이다.

조선기자동맹 중앙위원회는 괴뢰보수패당과 그 시녀로 전락된 쓰레기언론들의 비렬한 반공화국모략날조소동을 우리 국가의 신성한 인민적시책과 우리 인민의 존엄에 대한 악랄한 중상모독으로, 통촉대결에 환장이 된 악한들만이 저지를수 있는 반인륜적만행으로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괴뢰들이 우리에 대한 터무니없는 비방중상과 모략날조선전에 매달린것은 결코 어제오늘일이 아니며 우리는 그때마다 그 엄중성과 파국적후과에 대하여 알아들을만큼 충고도 주고 경종도 울려왔다.

하지만 괴뢰보수패당과 권력에 기생하는 쓰레기언론들은 한사코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등을 돌려대고 대결모략소동에 게속 열을 올리였다.

특히 친하의 대결광녀 박근혜역도의 집권 4년간 우리에 대한 괴뢰보수언론들의 외곡날조와 여론오도는 극도에 이르렀다.

누가 보아도 대뜸 허위이고 날조라는것이 드러날 어처구니없는 궤변과 악설들을 쉼새없이 내돌리고 그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위해 출처도 실체도 없는 《소식통》이니 뭐니 하는것들을 주어대는가 하면 인간쓰레기들까지 내세워 모략광대극을 벌려놓은 보수패당과 사이비언론들의 범죄에 대하여 다 파헤치자면 끝이 없다.

지어 우리의 최고존엄을 엄중히 훼손하고 모독하는 무엄하기 그지없는 모략여론들을 내돌리는 특대범죄도 서슴지 않고 감행하였다.

우리는 괴뢰보수패당과 매문가, 사이비언론들이 반공화국모략날조선전에 매달리며 저질러온 그 모든 범죄들을 죄다 기록해놓고있으며 앞으로 철저히 계산할것이라는데 대하여 숨기려 하지 않는다.

간과할수 없는것은 박근혜년의 탄핵과 함께 총체적인 파멸의 위기에 직면한 속에서도 보수잔당이 교훈을 찾을 대신 언론들을 부추겨 우리 공화국을 헐뜯고 비난하는 모략나발을 계속 불어대고있는것이다.

지난해 우리가 려명거리건설과 북부피해복구전역에서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해나가자 《건설속도를 높이기 위해 마약까지 먹이며 일을 시키고있다.》느니, 《노예로동》이라느니, 《부실공사》니, 《건물이 무너졌다.》느니 하는 온갖 모략험담들을 내돌리며 악을 써댄 괴뢰들이 그 완공소식과 새집들이경사가 전해지자 《제재결속을 위한것》이니, 《선전용》이니 하며 그것을 헐뜯지 못해 안달복달하고있으니 세상에 괴뢰패당처럼 고약한 심보와 꼬부라진 속통을 가진 비렬한들은 없을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그 어떤 《제재》나 《봉쇄》에도 끄떡없이 자력자강의 위대한 통력으로 최후승리의 행마루, 문명과 행복의 상상봉에로 소리치며 치달아오르는 우리의 눈부신 현실에 질겁한자들의 단말마적발악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을 터무니없이 날조하여 민심을 기만하고 여론을 오도하는 괴뢰패당의 모략적진상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지난 시기 평양을 방문하여 우리의 현실을 직접 보고 돌아간 남조선사람들은 괴뢰보수패당과 사이비언론들의 너무도 황당한 모략선전에 환멸을 느끼고 침을 뱉은지 오래다.

뜻깊은 태양절경축행사에 참가한 세계 여러 나라 대표단들과 기자, 언론인들, 수많은 해외동포들은 약동하는 우리 조국의 현실과 행복넘친 우리 인민들의 모습에서 감동을 금치 못해하였다.

현실을 날조하며 여론을 오도하는자들은 언제나 진실을 두려워하는 법이다.

괴뢰패당이 온갖 모략과 날조로 흑백을 전도하며 아무리 발악해도 참다운 인민의 세상, 인간사랑의 대회원인 우리 공화국의 참모습을 흐려놓을수도 가리울수도 없다.

우리는 이 기회에 다시한번 경고한다.

남조선보수언론들이 정의와 진리를 대변하고 시대를 선도해나가야 할 사명을 줴버리고 보수패당의 장단에 맞추어 계속 반공화국대결모략나발을 불어댄다면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의 앞길에 엄중한 해악을 끼친 반역집단, 몇푼의 너절한 돈에 언론인의 량심을 팔아 연명하는 추악한 매문가로 두고두고 온 민족의 저주를 받게 될것이다.

진정으로 언론의 고유한 모습을 되찾고 민심의 사랑을 받는 언론인이 되기를 바란다면 박근혜역도의 부정부패를 비롯한 온갖 범죄를 파헤치고 남조선사회의 악폐를 청산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우리 기자, 언론인들은 신성한 언론의 탈을 쓰고 민심을 우롱하며 여론을 오도하는 괴뢰보수언론들의 반공화국모략날조선전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며 정의의 붓대로 단호히 짓뭉개버릴것이다.

주체106(2017)년 4월 28일

평양

자위적국방력강화에 평화와 민족의 번영이 있다

오늘 백두산혁명강군은 그 어떤 원쑤도 일격에 격멸소탕할수 있는 무진막강한 핵타격능력을 보유한 세계최강의 혁명무력으로 위용떨치고있다. 무적의 핵보검으로 날강도 미제와 그 추종세력의 무분별한 북침핵전쟁책동을 단호히 짓뭉개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고있는 영웅적조선인민군은 동방의 핵강국, 무적의 군사강국의 억척의 지지점이다.

지금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은 자위적인 핵억제력강화를 위한 우리의 조치에 대해 《심각한 위협》이니, 《중대한 도발》이니 하고 악랄하게 중상모독하면서 그 무슨 《도발대비》의 간판밑에 군사적압력의 도수를 부쩍 높이고있다. 그러나 적들의 그 어떤 책동도 정의의 핵보검을 억세게 틀어쥐고 자주와 선군, 사회주의의 한길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을수 없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핵무력은 믿음직한 전쟁억제력으로,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담보로 됩니다.》

우리의 자위적핵억제력은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위협을 제거하고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 강력한 담보이다.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은 우리때문에 《안보위기가 고조》되고있다고 여론을 오도하면서 《북의 도발을 막아야 한다.》고 피대를 돋구고있다. 그야말로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의 날강도적인 궤변이고 사태의 본질을 오도하는 기만적인 광설이다.

조선반도에서 긴장을 격화시키고 핵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장본인은 다름아닌 미국이다.

미국은 이미 지난 세기 50년대에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무기사용을 기도하였으며 지난 수십년동안 우리를 핵으로 끊임없이 위협공갈하여왔다. 지구상에는 우리 나라처럼 미국으로부터 세기와 세기를 거쳐 엄중한 핵위협을 받고있는 나라가 없다.

언제인가 미국의 한 반핵운동가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북조선의 지지자가 아니다. 그러나 북조선이 왜 핵무기를 보유하려는가를 리해한다.

조선전쟁때 떨어뜨린 원자폭탄을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전쟁후에도 북조선에 대한 이러한 위협은 끝나지 않았다. 〈판문점사건〉때에는 미국본토에서 핵을 탑재한 폭격기가 리륙했다. 2003년 부시대통령이 핵선제공격을 운운했을 때 실지로 폭격기는 리륙을 준비하고있었다. 미국은 9차례이상이나 북조선에 핵공격위협을 가했다.》

미국의 무분별한 핵전쟁광란으로 조선반도정세가 핵참화의 문턱에까지 다달았던적은 한두번이 아니다. 자기를 해치겠다고 몽둥이를 들고 덤벼드는 날강도앞에 팔짱끼고 앉아있을 사람이 세상에 있겠는가.

평화는 순종이나 구걸로 지켜지는것이 아니다. 구걸할수록 더욱 횡포해지는것이 제국주의의 본성이고 그에 순종하고 양보하면 평화와 안정이 짓밟히고 나라가 망하며 민족의 운명이 풍지박산난다는것이 력사와 현실이 새겨주는 피의 교훈이다.

굴복하면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준다는 달콤한 거짓말에 현혹되였던탓에 국권을 강탈당하고 평화롭던 나라가 불도가니로 화하였으며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것이 미국의 날강도적인 침략책동에 짓밟힌 세계 여러 나라와 민족들의 비극적실태이다. 세계도처에서 빚어지는 몸서리치는 류혈사태는 평화는 굴종이 아니라 오직 제국주의의 무지막지한 침략적전횡을 단호히 꺾어버릴수 있는 강력한 힘으로써만 지킬수 있다는것을 립증해주고있다.

그로부터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강위력한 핵억제력을 보유하였으며 오늘은 온 세계가 경탄을 금치 못하는 불패의 군사강국을 일떠세웠다. 최강의 핵억제력을 틀어쥔 무적의 혁명강군이 있기에 그 어떤 침략자도 이 땅에서 감히 도발의 불집을 터치지 못하고있다.

미국이 지금 가소롭게도 《대북선제타격》설을 내들며며 핵항공모함타격단을 비롯한 핵전략자산들을 대대적으로 투입하여 군사적위협소동에 더욱 미친듯이 매어달리고있는것은 핵전쟁야망이 수포로 돌아간데 대한 절망감으로부터 나온 단말마적발악이다.

우리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핵공격능력을 힘차게 과시한 주체탄, 통일탄들의 장쾌한 폭음은 미국이 분별없이 불질을 해온다면 우리 식의 무자비하고 번개같은 핵공격으로 하와이와 괌도는 물론 미본토까지도 일격에 초토화해버릴 단호한 징벌의지의 선언이다. 우리는 국제의 핵을 가차없이 짓부실수 있는 강위력한 정의의 핵마치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수호해나갈것이다.

위대한 선군정치에 의해 마련된 우리의 자위적핵억제력은 나라의 통일과 륭성번영을 담보하는 민족공동의 재보이다.

괴뢰패당은 우리의 자위적핵억제력이 《평화에 대한 위협》이며 그에 따른 《가장 큰 피해자》는 저들이라고 아부재기를 치고있다.

하지만 원쑤들은 그 어떤 궤변으로도 우리의 핵억제력의 정의롭고 애국애족적인 성격을 절대로 가리울수 없다.

우리가 만난을 무릅쓰고 핵억제력을 강화해온것은 미국의 날강도적인 핵전쟁도발책동을 짓부시고 전민족의 운명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민족의 운명에 대한 책임감, 숭고한 애국애족의 의지로부터 우리 공화국은 선군의 기치높이 혁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억제력을 백방으로 다져왔다.

우리가 선군으로 강력한 전쟁억제력을 다져놓았기에 미제의 새 전쟁도발책동이 그토록 악랄하게 감행되는 속에서도 조선반도에서는 전쟁의 불집이 터지지 않았고 우리 겨레는 핵전쟁의 참화를 입지 않았다. 반세기이상의 민족분렬사를 뒤흔들며 우리민족끼리기치밑에 전진하는 자주통일시대가 탄생하고 북남관계가 획기적으로 발전한것도 선군정치로 마련된 우리 공화국의 불패의 군력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온 겨레가 선군의 덕을 보고있으며 온 민족이 동방의 핵강국의 철통같은 보호속에서 살고있다. 위대한 선군의 기치밑에 억척같이 다져진 우리의 강력한 자위적핵억제력이야말로 민족존엄의 상징이고 민족공동의 귀중한 재보이다.

선군으로 위력떨치는 우리 공화국이야말로 통일강국의 미래이라는데 대해서는 남조선과 해외동포들도 한결같이 인정하고있는바이다.

남조선의 한 기자가 《북의 억제력은 민족의 힘이고 재부이다. 북이 강국이 되니 민족이 강해져 좋고 미국이 건드리지 못하니 전쟁이 막아져 좋다.》고 말한것은 선군정치에 공감하며 그것을 지지옹호하는 남녘민심을 대변한것이다.

핵보유국들의 전렬에 당당히 들어선 우리 공화국의 위용에서 온 겨레는 조선민족된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며 자주통일의 밝은 앞날을 확신하고있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킴데 대한 우리 당의 전략적로선은 결코 금변하는 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일시적인 대응책이 아니다. 강력한 핵억제력에 의거하여 자주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고 민족의 륭성번영의 앞길을 활짝 열어나갈 우리의 립장은 확고부동하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이 악랄해질수록 우리는 자위적핵억제력을 더욱 억척같이 다져나갈것이다.

핵강국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는 바로 여기에 나라의 평화와 통일, 민족번영의 휘황한 앞날이 있다.

은 정 철

호전광들의 철면피한 기만극

얼마전 남조선괴뢰들이 미국, 일본상전들과 제9차 《안보회의》라는것을 벌려놓고 또다시 반공화국공조를 모의하였다. 조선반도의 정세가 핵전쟁발발국면으로 치닫는데 대한 내외의 우려가 그 어느때보다 높아가고있는 때에 상전과 주구사이에 벌어진 이 도박판이 노린 목적은 다른데 있지 않다. 저들의 무분별한 도발책동으로 초래된 조선반도와 지역의 군사적긴장과 정세악화의 책임을 우리에게 뒤집어씌우고 반공화국제재압박과 북침전쟁소동을 합리화하며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기 위한데 있다.

그에 대해서는 괴뢰패당이 미, 일상전들과의 모의끝에 발표한 보도문의 내용이 잘 말해주고있다. 거기에서는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위적조치를 그 무슨 《위협》으로 터무니없이 걸고들었는가 하면 지난 3월에 벌려놓은 도발적인 미싸일요격훈련과 우리의 핵실시설에 대한 핵전략폭격기 《B-1B》의 정밀타격훈련 등 광란적인 대규모북침불장난들에 대해서도 《호과적인 대북억제력발휘》니 뭐니 하고 강변하면서 《협력강화》를 광고하였다. 강도가 강도야 한다더니 바로 이런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매개 나라와 민족이 자체의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러쿵저러쿵 시비할수 없다. 특히 세계최대의 핵전범국인 미국과 맞서고있는 우리의 실정에서는 더욱 그렇다. 우리의 국방력강화조치는 철두철미 미국의 가증되는 핵위협으로부터 나라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것이다.

우리에게 세기를 이어 핵위협을 가하고있는 미국이 도리여 하수인들의 입까지 동원하면서 우리를 그 무슨 《위협》이니 뭐니 하고 걸고드는것이야말로 철면피의 극치이다. 남의 집앞에 몽둥이를 들고 선 강도가 집주인더러 위협한다고 아부재기를 치는것보다 더 가소로운것은 없을것이다. 우리의 핵보유가 미국의 《위협》으로 된다면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미국이 우리에게 핵몽둥이를 휘둘러온데 대해서는 과연 무엇이라고 변명하겠는가.

명백히 하건대 미국이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매달려 우리에 대한 핵위협공갈을 계속 일삼는 한 그것을 제압하기 위한 우리의 자위적억제력은 더욱 강화될것이다.

미국과 괴뢰들은 그 어떤 궤변으로도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핵전쟁구름을 몰아오는 장본인으로서의 그 추악한 정체만은 절대로 가리울수 없다.

비리성적이고 호전적인 미국의 현 당국자들은 그 무슨 《전략적인내가 끝났다.》느니, 《최고의 압박과 개입》이니 뭐니 하면서 방대한 침략무력을 조선반도와 그 주변지역에 전개해놓고 우리에 대한 군사적위협과 압박의 도수를 무한정 높이고있다. 남조선전역에서 《참수작전》과 《대북선제타격》을 골자로 하는 북침합동군사연습이 광란적으로 감행되고 미핵항공모함타격단들이 조선반도주변지역에 긴급투입되고있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미호전계층속에서는 《수리아공격은 북조선에 대한 경고》라느니 뭐니 하는 극히 도발적인 폭언들까지도 거리낌없이 뛰여나오고있다.

현실이 이러함진대 적대세력이 제아무리 그 누구의 《위협》과 《도발》에 대하여 피대를 돋구어도 그것을 곧이들을 사람은 없다. 괴뢰들이 미국상전과 함께 《북위협》과 《도발》의 북풍을 요란하게 두드릴수록 그것은 북침전쟁의 위험이 그만큼 박두하고있다는것을 시사해줄뿐이다.

그에 대해서는 지금 세계의 적지 않은 나라들이 커다란 우려를 금치 못하고있으며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폭발국면에로 몰아가는 미국과 괴뢰들을 단죄규탄하고있다.

이번에 괴뢰패당이 미, 일상전들과의 《안보회의》라는것을 벌려놓고 그 무슨 《협력강화》에 대해 떠들어댄것은 저들에게 쏠린 내외의 비난여론을 어떻게 하나 딴데로 돌리고 반공화국제재와 북침전쟁소동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것이다.

현실은 우리가 만난을 무릅쓰고 자위적핵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해온것이 얼마나 현명한 선택이였는가를 더욱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침략의 폐무리가 달려든다 해도 강위력한 자위적억제력을 가진 우리는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괴뢰패당이 상전들과 골백번 반공화국모의판에 마주앉아보아야 공리공담밖에 나올것이 없다.

적대세력이 제아무리 발악하여도 자기의 신념, 자기의 배짱, 자력자강의 힘으로 폭풍노도쳐 나아가는 동방의 핵강국, 불패의 군사강국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한다.

조 남 수

범죄자를 싸고도는 비렬한 추태

지난 4월 17일 괴뢰검찰은 박근혜와 우병우를 재판에 정식 기소하였다. 이로써 특대형추문사건에 대한 검찰수사는 종결되였다. 하지만 이것으로 박근혜일당이 저지른 엄청난 죄악의 진상이 철저히 밝혀졌다고 볼수 있겠는가.

아니다. 남조선언론들은 《절반의 진실》은 가리워졌다.》, 《검찰의 한계를 다시금 확인시켰다.》고 하면서 특대형추문사건에 대한 수사를 어물쩍해치운 검찰당국을 비난하고있다. 특히 남조선 각계는 괴뢰검찰이 우병우를 불구속기소한 사실에 격분을 금치 못하고있다.

특대형추문사건과 관련하여 박근혜역도 못지 않은 엄벌을 받아야 할 범죄자가 바로 우병우이다. 전 청와대 비서실장,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을 포함하여 현재 덜미를 잡힌 박근혜의 수금줄개들의 죄행도 우병우에 비할바가 못된다.

하지만 응당 박근혜역도와 함께 오라를 져야 할 우병우는 불구속기소되였다. 괴뢰검찰이 우병우와 관련한 명백한 수사결과를 내놓지 못한데다가 괴뢰법원이 그것을 구실로 우병우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시켰기때문이다.

우병우로 말하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감투를 쓰고있으면서 박근혜역도의 범죄행위에 사사건건 공모하였을뿐아니라 특대형추문사건에 대한 수사를 악랄하게 가로막아온 장본인이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뒤받침한것도 우병우이고 최순실의 《국정》롱락행위를 방조하고 그에 적극 가담한것도 이자이다. 우병우는 자기 직권을 악용하여 각종 부정부패행위를 일삼은 혐의도 받고있다.

특별검사가 제시한 우병우의 범죄혐의는 직무유기, 직권람용 등 무려 11가지에 달한다. 이로 하여 우병우는 최순실, 김기춘과 함께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의 《핵심3인방》으로 락인되였다.

이런 특등범죄황초를 괴뢰검찰은 처음부터 싸고돌았다.

남조선에서 특대형추문사건이 터지고 우병우에 대한 비난여론이 고조되던 지난해 11월 검찰당국은 사건조사의 명목으로 우병우를 호출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격노한 민심을 녹잦히기 위한 기만극이였다. 명색이 수사책임자라는자부리가 우병우를 방에 끌어들여 차를 대접한다 어쩐다 하며 부산을 피웠고 검사나부랭이들도 허리를 굽신거리며 역도의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하였다. 심문을 받는다는 우병우는 오만방자하게 팔짱을 끼고앉아 웃음까지 짓는 반면에 검사들은 일어서서 손을 모으고 역도의 말을 《정중히 듣는 자세》를 취했다니 그런 수사놀음에서 도대체 무엇을 기대할수 있겠는가.

괴뢰검찰의 이런 어처구니없는 처사에 대해 인민들이 분노를 터친것은 물론이다. 당시 궁지에 몰린 괴뢰검찰패거리들은 우병우가 《범죄에 직접 관여한 혐의가 없다.》는 구차스러운 변명으로 저들의 망동을 정당화하려 하였다.

이번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검찰당국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압수수색한다, 우병우를 소환하여 밤늦게까지 조사한다 하고 냄새를 피웠지만 그 식이 장식이다. 괴뢰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을 비롯한 검찰우두머리들이 범죄자인 우병우와 장시간에 걸쳐 전화통화까지 하였다니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결국 괴뢰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검찰이 우병우에 대한 결치레수사놀음끝에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시켰고 역도는 태로운 웃음을 지으며 검찰청청사를 떠났다.

하다면 괴뢰검찰이 우병우를 싸고도는 리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병우와 괴뢰검찰이 떨수 없이 련결되여있기때문이다.

우병우가 특대형추문사건의 실마리를 잡았던 전 특별감찰관에게 해임압력을 가한것을 비롯하여 《세월》호참사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범죄행위들은 다 괴뢰검찰총장이나 괴뢰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고위관료들과 련관되여있다고 한다. 우병우가 구속되면 괴뢰검찰상층부의 죄악도 감추기 어렵게 된다. 이로부터 검찰패거리들은 구속영장에 우병우의 범죄사실가운데서 기본은 다 빼버리고 뚱딴지같은 자료들만 잔뜩 올렸다. 우병우를 구속할 명분이 무엇인지 알수 없는 이런 도깨비문서장을 제출함으로써 그것이 법원에서 기각되지 않을수 없게 만들었던것이다. 오죽했으면 남조선의 법전문가들속에서 《영장을 보고도 리해하기 어려울 정도》, 《기각을 바라고 영장을 청구한것》이라는 비난이 울려나왔겠는가.

이렇게 괴뢰검찰이 특대형추문사건을 빚어낸 범죄자들을 공공연히 비호두둔하고있으니 박근혜일당이 아직도 기가 살아 저들의 죄악을 몽땅 무인하며 민심에 도전해나서고 보수떨거지들은 박근혜의 《사면》까지 부르짖으며 해괴망측한 추태를 부리고있는것이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박근혜와 우병우에 대한 재판을 주시하고있다.

만일 재판에서 괴뢰검찰이 지금과 같은 자세로 박근혜일당을 은근히 비호하며 얼떨떨하게 놀아댄다면 그것은 남녘의 초불민심을 짓밟는 용납 못할 처사로 될것이다.

괴뢰검찰이 특대형추문사건을 저지른 박근혜일당을 계속 싸고도는 망동을 부린다면 범죄자들과 같고같은 청산대상으로 되고말것이다.

본사기자

죄는 지은데로 가기마련이다

특대형추문사건을 저지르고 탄핵되여 감방에 끌려간 박근혜역도가 드디여 재판장에 서게 되였다. 얼마전 괴뢰검찰이 뇌물행위와 직권람용, 공무상의 비밀루설 등의 혐의로 역도를 정식 기소한것이다. 이로 하여 박근혜는 완전한 범죄자의 신분으로 재판장에 끌려나가게 되였다.

알려진바와 같이 검찰의 구속영장발부로 탄핵된지 21일만에 서울구치소의 독감방에 끌려간 역도에게는 그곳에서 범죄조사를 받지 않으면 안되는 비참한 운명이 차례졌다. 역도가 청와대에서 쫓겨나 독감방으로 끌려간것은 력사와 민심의 준엄한 심판이였다.

그런데 괴뢰역도는 그에 도전하면서 5차례에 걸치는 검찰조사과정에 자기의 범죄사실을 다시금 부인하는 망동을 부리였다. 이런 속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떨거지들은 박근혜가 《사회를 위해 재단들의 설립을 추진》했다느니, 《사심이 없었다.》느니 하면서 역도를 비호하려고 발광하였다.

하지만 끊임없이 폭로되고있는 사실자료들은 박근혜역도야말로 특대형부정부패범죄의 조직자, 집행자라는것을 명백히 립증해주고있다.

괴뢰검찰당국이 제출한 박근혜의 구속기소혐의들중의 하나인 뇌물행위만 놓고보아도 조사초기에는 역도가 직접 또는 제3자를 거쳐 받은 자금액수가 200억원대선을 오르내렸다. 하지만 역도가 구속된 이후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들에 대한 조사가 심화되면서 그것은 400억원대선에 올라섰고 최종적으로는 근 600억원에 이르렀다. 박근혜역도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자금을 내도록 강박한 대기업들의 수도 종전의 10여개정도로부터 50여개로 늘어났다.

박근혜역도의 부정부패범죄를 고발하는 사실자료들은 새롭게 계속 드러나고있다. 박근혜가는것을 막기 위한 술책이였다.

박근혜역도가 리재용을 만난 이후 《JTBC》방송사를 통한 삼성전자의 광고량은 급격히 감소되였는데 이것은 다름아닌 박근혜의 강요에 따른것이였다. 박근혜는 그후에도 자기가 전 《중앙일보》 회장을 2차례나 직접 만나 《JTBC》방송사 사장을 교체할것을 강박하였다.

남조선언론들은 박근혜가 특정언론사의 보도활동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담당자를 교체할 심산으로 언론사를 장악하고있는 기업주를 불러 자기 요구를 들이대군 하였다고 비난하면서 이런 사실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추궁을 주장하였다.

이론이 아니다.

박근혜가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며 그동안 발뺌질을 해온 진보적문예인들에 대한 요시찰명단작성놀음도 사실은 역도의 지령에 따른것이였다는것이 계속 폭로되고있다.

전 괴뢰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윤선과 그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계자들, 청와대에서 요시찰명단을 직접 관리했던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은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고보니 박근혜로부터 전화가 오고 그에 따라 요시찰명단이 작성되였다.》고 토설하였다.

박근혜의 죄악을 폭로하는 새로운 자료들가운데는 역도가 《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자기의 무능한 처사를 비난하는 영화의 상영을 가로막을수 없게 되자 문화체육관광부의 여러 관계자들을 가차없이 제거한 자료, 최순실의 딸이 도꾜에서 진행되는 올림픽경기에 나갈수 있게 지원하도록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내리먹인 사실, 최순실이 매주 2~3회에 걸쳐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문서를 정상적으로 받아보았다는것을 립증하는 증언자료도 있다.

박근혜가 저지른 범죄사실들이 매일같이 꼬리를 물고 드러나고있는 속에 괴뢰검찰당국이 역도를 재판에 기소하면서 발표한 범죄혐의는 구속영장발부당시의 13개로부터 18개로 늘어났다.

산처럼 쌓이는 박근혜역도의 죄행과 관련한 사실자료들을 놓고 남조선언론들은 최대무기징역이 가능한 특대형범죄사건이라고 평하고있다.

박근혜역도와 그 졸개들이 아무리 범죄사실들을 부정하며 오그랑수를 써도 소용이 없다. 박근혜역도가 민심의 심판을 피하기에는 저지른 죄악이 너무도 크고 엄청나다.

죄는 지은데로 가기마련이다.

만고죄악을 저지른 박근혜역도와 그 일당이 력사의 준엄한 징벌을 받는것은 절대로 피할수 없다.

본사기자 리 성 호

영웅전사들이 발휘한 수령결사옹위의 숭고한 정신을 적극 따라배우고있다.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본사기자 찍음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도이췰란드대통령에게 신임장 봉정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24일 도이췰란드련방공화국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프랑크-왈터 슈타인마이어대통령에게 보내시는 인사를 박남영대사가 정중히 전하였다.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의 인사를 전달하였다.

대통령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자신의 인사를 전하여드릴것을 대사에게 부탁하였다.

일요일에 진행될 체육경기

4월 30일(일요일) 오전 청춘거리 수영경기관에서 수산성체육단과 중앙체육학원 녀자선수들의 수구경기가 진행된다.

에스빠냐 루삐씨니오법률사무소 국제관계국장 귀국

호세 마리아 비날스 까마욘가 에스빠냐 루삐씨니오법률사무소 국제관계국장이 28일 비행기로 귀국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조국의 미래를 안고 사는 뜨거운 마음

락랑구역 송남고급중학교 일군들이 들려준 이야기

문턴바 그대로 락랑구역 송남고급중학교는 당의 령도업적단위답게 내외부가 불과보게 일신되였다.

푸른색철판기와를 얹은 학교건물과 어울리게 복도며 교실 등 어디라할것없이 산뜻하게 꾸려졌다. 콤퓨터와 액정텔레비존 등을 갖춘 정보기술학습실도 훌륭하였고 시청각실비품을 갖춘 영어학습실도 멋있었다.

우리와 만난 교장 장영환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학교의 교육조건과 환경개선을 위해 사심없는 지원을 아끼지 않은 고마운 사람들부터 소개해주십시오.》

교장의 얼굴에 추억의 빛이 력력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누구나 보석과 같은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유익한 일을 스스로 찾아하여야 합니다.》

올해 정초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격정속에 받아안은 장영환동무는 흥분을 누를길 없어 학교로 달려나왔다. 당의 령도업적이 어려있는 영광의 교정답게 교육조건과 환경개선을 위해 더 해놓아야 할 일은 없는지 가늠해보는데 느닷없이 전화종소리가 울렸다.

《교장선생님, 우리 원수님께서는 신년사에서 과학교육의 해인 올해에 전국가적, 전사회적으로 과학교육시설과 환경을 일신시키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지금 막 학교로 달려가고싶은 심정입니다.》

교장은 흥분된 목소리의 주인공이 몇해전부터 학교일을 성심성의껏 도와주고있는 락랑구역 인민위원회 아래단위 일군인 신금숙동무라는것을 어렵지 않게 알수 있었다.

교장은 가슴이 뭉클하였다. 그는 고맙다는 인사말만 곱씹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몇시간후에 신금숙동무가 어려더러 콤퓨터를 가지고 수십리길을 달려 학교에 도착할줄이야 어찌 알았으랴.

《아무리 생각해도 그저 앉아있을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말끝을 맺지 못하며 서둘러 가져온 콤퓨터들을 넘겨주는 신금숙동무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흥분과 격정이 남아있었다.

이윽하여 그는 교장과 마주앉아 학교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보다 일신하기 위해 무엇을 더 해놓아야 하겠는가에 대하여 진지하게 토의하였다.

교육의 정보화에 필요한 설비들도 더 갖추어놓자고 의견을 내놓는 신금숙동무의 눈은 60고개를 넘어선 녀성답지 않게 별처럼 빛나고있었다.

교장의 가슴은 젖어들었다.

얼마나 고마운 마음인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몇해전 학교청사를 령도업적단위답게 일신하기 위한 건설전투가 벌어지던 때 소개도 없이 불쑥 나타나 후방물자며 건설자재들을 넘겨주며 하던 그의 말이 떠올랐다.

《자식들을 가진 어머니들의 마음으로 알고 이 물자들을 받아주십시오. 학생들을 훌륭히 키워 그들이 후날에도 자기 모교를, 어버이수령님께서 다녀가신 송남고급중학교를 자랑으로 여기게 해주십시오.》

고마운 그 진정이 교직원들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었다.

그때부터 신금숙동무와 종업원들은 스스로 학교의 후원단체가 되여 온갖 성의를 다하였다.

건설에 필요한 비닐박막을 비롯한 자재들도 마련해주었고 여러차례에 걸쳐 후방물자들을 보내주어 건설자들의 사기를 높여주었다. 콤퓨터와 액정텔레비존 등 교육사업에 필요한 설비들도 스스로 맡아 보장해주었다. 가정살림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친어머니의 정을 기울이였고 학생들의 심리에 맞게 정보기술학습실, 영어학습실의 책걸상 하나하나에도 원심을 썼다. 이런 그들을 학생들은 우리 어머니라고 부르며 따랐다.

우리 어머니, 그 부름은 졸업생들을 떠나보내고 신입생들을 맞으며 네해가 흐른 오늘까지도 변함이 없었다. …

뜨거운것을 삼키며 교장은 올해에는 어떻게 하나 수영장을 개건할 속생각을 내비쳤다.

신금숙동무가 마치 자기 일인듯 기뻐하였다.

《교장선생님,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힘껏 돕겠어요.》

교장이 신금숙동무에 대하여 더욱 깊이 알게 된것은 수영장개건공사가 한창이던 지난 3월말이였다.

뜻밖의 사정으로 건설자재가 예상보다 더 요구되였었다.

교장의 마음은 착잡하였다.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수십t의 세멘트를 싣고와서 공사를 떠밀어주던 신금숙동무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선뜻 결심을 내리지 못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회의차로 구역당위원회에 갔던 교장은 뜻밖에도 신금숙동무를 만나게 되였다.

그가 신금숙동무를 만난 곳은 구역의 어느 한 유치원에서였다. 솔타리공사가 한창인 구내에는 작업복차림의 신금숙동무도 있었던것이다.

그곳에서 그는 구역당위원회의 한 일군을 통해 신금숙동무와 종업원들이 구역의 교육사업을 위해 아낌없는 지성을 바쳐가고있는 사실을 알게 되였다.

해마다 락랑구역 관문1유치원의 교양원, 원아들에게 여러가지 지능놀이감들과 생활용품들도 안겨주며 명절을 축하해주고있는 사실, 락랑구역 락랑소학교의 체육환경실을 위해 수십벌의 작업복을 자진하여 맡아보장해주었고 10월8일모범교수자의 영예를 지니게 된 구역의 교원들을 위해 지난 5년간 성의껏 마련한 기념품들을 안겨주고 예술소품공연무대도 펼쳐놓으며 그들의 교수교양사업을 적극 고무해준 사실…

장영환동무는 머리가 숙어짐을 금할수 없었다.

《그때 저는 그의 모습에 자신을 비추어보았습니다. 그 고마운 마음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 힘으로 수영장건설을 마저 끝낼 결심도 다졌습니다.

그런데 저의 모습을 되여본 그가 다가왔습니다. 저의 얼굴색에서 그는 벌써 수영장공사가 지장을 받고있다는것을 느낀것 같았습니다. 제가 바재이다가 자재이야기를 꺼내놓자 그는 헌헌히 말했습니다.

〈교장선생님, 제가 미처 관심을 돌리지 못했구만요. 우리 동무들도 두말없이 나설것입니다.〉

물론 다음날에는 어머니의 세멘트를 실은 화물자동차가 학교운동장에 들어섰습니다. …

오늘처럼 누구나 부러워하게 일신된 학교를 보며 저는 신금숙동무와 종업원들의 모습을 눈앞에 떠올리군 합니다.

정말이지 조국의 미래를 위해 사심도 가식도 없는 사랑과 진정을 바쳐가는 이들이야말로 진짜애국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교장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우리의 마음은 마냥 뜨거워올랐다.

이런 고결하고 아름다운 애국의 마음들이 뿌리가 되고 밑거름이 되여 당의 교육중시사상을 한마음한뜻으로 받들어가고있으니 내 조국은 멀지 않은 앞날에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의 령마루에 올라설수 있다는 확신으로 가슴은 부풀어올랐다.

본사기자

핵전쟁도발로 얻을것은 종국적멸망뿐

미국이 광란적인 합동군사연습들을 련이어 벌려놓은데 이어 항공모함타격단을 또다시 조선반도와 그 주변수역에 긴급이동시키고있다.

《칼빈손》호타격단이 조선반도수역에서 흉체를 드러냈다. 뒤따라 《로날드 레간》호와 서태평양상으로 기동중인 《니미쯔》호까지 조선반도작전구역에 진입하게 될것이라는 여론도 나돌고있다.

수리아에 대한 미싸일공격이후 우쭐해진 미국대통령 트럼프와 국방장관 마티스가 우리의 《핵 및 미싸일위협》을 운운하며 강력한 함대를 보낼것이라고 기염을 토한데 따른 군사적움직임이다.

전쟁은 대대적인 무력증강을 전제로 하며 무력증강은 빠른 기동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미항공모함들의 조선반도수역에로의 기동은 미국이 조선반도에서 핵전쟁도발을 기도하고있다는것을 웅변으로 실증해준다.

트럼프행정부는 우리를 극도로 압박하면서 공화국의 전략적핵심지역들에 대한 선제타격망상을 실현해보려고 어리석게 기도하고있다.

스쳐지날수 없는것은 미국이 추종국가들까지 동원하여 수리아에 대한 미싸일타격이 우리에 대한 《경고의미》를 담고있다고 광고하면서 그 무슨 《위기상황》을 여론화하는 속에 이러한 군사적움직임이 벌어지고있다는 사실이다.

지금 조선반도정세는 미국이 감히 우리 수뇌부를 노린 《참수작전》과 《선제타격》을 제창하며 련이어 벌려놓은 극악무도한 합동군사연습들로 하여 일촉즉발의 군사적초긴장상태에 있다.

이러한 때에 트럼프행정부가 항공모함타격단을 조선반도주변수역에 들이밀고있는것은 위험천만한 핵전쟁도발을 노린 전쟁미치광이들의 무모한 망동이다.

최근 남조선과 일본을 행각한 미국부대통령 펜스는 《전략적인내시대는 끝났다.》느니, 힘으로 그 무엇을 얻을것이라느니 하며 우리와의 힘의 대결을 공언하였다. 이것은 트럼프행정부의 핵전쟁도발광증이 얼마나 무모한 지경에로 치닫고있는가를 보여주는 명백한 립증이다.

내전으로 지친 수리아에 불의적인 미싸일공격을 가하고는 우리에 대한 《경고의미》니 뭐니 하며 항공모함타격단을 급파한다고 부산을 피우는 미국의 망동은 신통히도 지난 세기의 색바랜 《포함외교》를 방불케 한다.

그런 낡은 시대의 광동품같은 유물에 매달려 우리를 놀래워보려는것은 심한 착오이다.

수리아에 대한 미국의 날강도적인 침략행위는 우리의 병진로선의 정당성에 대한 가장 명백한 실증으로 된다. 우리 인민은 미국의 불법무도한 강권과 전횡을 목격하며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군사강국의 힘에 대한 자부심, 그로 하여 가지게 되는 강자의 자존심에 대하여 생각한다.

그때 미국의 정책고안자들에게는 트럼프행정부의 즉흥과 오판으로 인한 미국의 재난을 막아야 한다는 자국민들의 아우성이 들리지 않는가.

최근 미국내에서 진행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근 60%의 미국인들이 우리를 겨냥한 공격을 반대하였으며 특히 민주당지지층의 85%가 트럼프의 《조선핵대처능력》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고 한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어야 한다, 불안하다, 끔찍하다는 비명은 미국회에서도 군부에서도 거침없이 쏟아져나오고있다.

자국민들의 아우성을 귀등으로 흘려보내며 자멸의 함정을 향해 질주하는 트럼프행정부의 망동은 에스빠냐작가 세르반떼스가 쓴 장편소설의 주인공 돈 끼호떼를 련상케 한다.

미국카리익센터 국방연구소 소장을 비롯한 군사전문가들은 우리에 대한 선제타격 그 자체를 재난적인 악몽의 시작으로 보고있다. 예측으로만 상상해오던 파멸적인 각본이 현실로 되는것을 바라지 않는다는것이 미국내의 주도적인 여론이다.

정신도덕적으로 타락한 미군이 유일하게 의지하던 군사기술적우세마저도 동방의 핵강국앞에 완전히 허물어졌다는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데 아메리카제국의 가장 큰 불행이 있다.

우리는 이번에 공화국의 자주권을 찬탈하려는 미국과 호들갑을 떨며 그에 추종하는자들의 도발광증을 영원히 식혀줄 백두산대국의 핵타격력이 어떤것인지 세계에 똑똑히 보여주었다.

지난 4월 15일 열병광장을 누비며 지축을 뒤흔든 우리 식의 위력한 최첨단전략무기들을 보며 적들속에서는 어떤 비명이 터져나왔는가.

조선이 지상대해상로케트를 비롯한 신형전략무기들을 대대적으로 공개했다,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2》형을 실은 국산화된 리태식탄도탄자행발사대차가 저렇게 많이 나올줄은 몰랐다, 고도화된 전략무기개발과 국산화속도가 놀랍다, 특히 조선이 미본토타격이 가능한 세가지 형의 대륙간탄도로케트를 동시에 공개했는데 그중에서도 두가지 형의 신형대륙간탄도로케트는 원통형발사관에 담긴채로 열병식에 등장했다, 이는 공개된적이 없던 완전히 새로운 종류로서 고체연료발동기를 사용하는 선진적인 랭발사체계방식의 《북극성》계렬 최신형로케트로 보인다, 위협적인 신형전략무기들로 대미보복능력을 대대적으로 과시했다라는 등 나름대로의 분석과 탄식들이 쏟아져나왔다.

오늘날 트럼프행정부가 맞선것은 명실상부한 동방의 핵강국, 아시아의 로케트병주국이다.

백두산혁명강군에게 있어서 조준경앞에 바싹 다가들어 비대한 몸집을 흔들어대는 항공모함들을 무용지물로 만드는것은 문제가 아니다.

위력한 핵탄두들을 탑재한 우리 전략로케트들의 최종목표는 미본토이다.

미국은 지금까지 지리적으로 조선반도와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있는 제나라를 안식처로 생각해왔다.

그런 지리적《행운》을 영원한것으로 여기면서 미제는 조선반도에 각종 핵전략자산들을 닥치는대로 끌어들여 우리 민족에게 세기를 이어 핵위협공갈을 일삼아왔다.

그 위협의 대가가 얼마나 쓰디쓴것인지 미국이 똑똑히 알게 해줄 때가 되였다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의지이다.

태평양은 이제 더는 미국의 안식을 담보하는 정온의 대양이 아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땅덩어리가 우리의 핵선제타격수단들앞에 완전히 로출되여있다.

내외여론들이 항공모함이니, 전략폭격기니 하는것들을 믿고 멋없이 우둔렁거리는 트럼프행정부에 자중자숙을 권고하는 리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의 타격은 미국의 생존을 허용하지 않는 무자비한 징벌로 될것이다.

우리의 핵선제타격앞에서 도발자들에게 차례질것은 남조선 불바다, 일본제도미, 미국 본토라는 비극적결과뿐이라는 내외의 객관적인 예평을 심사숙고하여 새겨들어야 한다.

미국은 백두산혁명강군이 정의의 절대병기로 미본토를 통째로 없애버릴 멸적의 시각만을 기다리고있다는것을 명심하라.

웅쩍하기만 하면 4월의 열병광장을 노도처 누빈 대륙간탄도로케트들이 그대로 미국에 날아갈것이다.

트럼프행정부가 무모한 핵전쟁도발로 얻을것은 아메리카제국의 종국적멸망이라는 참담한 결과뿐이다.

리 효 진

무적의 조선인민군 만세

스위스단체들 공동성명 발표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85돐에 즈음하여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스위스준비위원회, 스위스조선위원회,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조가 18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조선인민군의 창건과 강화발전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격찬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인민군은 강철의 의지와 비범한 지략을 지니신 위대한 백두령장 김일성대원수의 탁월한 령도밑에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국을 력사상 처음으로 타승한 영용한 군대이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의 손길아래 조선인민군은 미제의 무분별하고 침략적인 반공화국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는 무적필승의 대오로 강화발전되였다.

오늘 조선인민군은 수소탄까지 보유한 최강의 혁명무력으로 자라났다.

미제호전광들이 감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침공한다면 조선인민군은 적들에게 무자비한 섬멸적타격을 가할것이다.

조선인민군은 선제타격을 가할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이미 갖추고있다.

핵선제타격은 더이상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다.

미제와 전쟁광신자들에게 공포를 주는 조선의 핵무력은 조선반도와 세계평화를 믿음직하게 수호하는 선군의 보검이다.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조선인민군은 적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군대이다.

하기에 그 어떤 대적도 감히 조선을 건드릴 엄두를 내지 못하고있는것이다.

백두산혁명강군인 무적의 조선인민군 만세!

여러 나라 정당, 단체대표단과 각계 인사들

우리 나라 대표부 축하방문

태양절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정당, 단체대표단과 각계 인사들이 3월 29일부터 4월 16일까지의 기간에 해당 나라 주재 우리 나라 대표부들을 축하방문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 절세위인들께서 함께 계시는 영상미술작품에 감보자, 데히로, 나이제리아의 여러 정당, 단체대표단들과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총조정관, 고등교육성 부상 겸 조선통일지지꾸바위원회 위원장, 뜨렌싸 라띠나통신사 사장, 혁명무력성 국장들, 봉끌 대외관계성 국장, 이란이슬람교련합당 제1부총비서, 이란군대 의례 및 대외관계부장, 이란로동자의 집 국제관계부장, 태양절경축 방글라데슈준비위원회 위원장, 방글라데슈인민련맹 위원장, 민족사회주의당 중앙집행위원회 국제비서, 전 네팔정부 수상, 네팔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총비서, 브라질민주로동당 전국위원장과 총비서, 민주통고로동당 총비서,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위원장, 적도기네민주당 지도부성원들, 앙골라인민해방운동 대외관계부부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나이제리아전진보대련합 대리지도자는 조선인민은 위대한 김일성주석을 자애로운 어버이로 변함없이 높이 모시고있다, 이 숭고한 사상감정이 어디에 근원을 두고있는지 오늘 대사관방문을 통하여 더 잘 알게 되였다,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쳐 자기가 선택한 사회주의길로 꿋꿋이 나아가는 조선인민의 모습은 세방이 떠드는 허위선전의 기만성과 저렬성을 다시금 확증해준다고 언급하였다.

민주통고로동당 총비서는 뜻깊은 태양절에 즈음하여 인류의 태양이신 김일성주석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 계시여 조선인민은 미일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로 힘차게 전진할수 있었다.

주석께서 아버님으로부터 물려받으신 귀중한 유산들은 조선을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킨 원천으로 된다고 생각한다.

존경하는 김정은원수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반드시 경제강국을 일떠세울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조선인민에게 핵참화를 들씌우려는 미제와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을 단호히 단죄규탄한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료녕지구협회 대변인 담화 발표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료녕지구협회 대변인이 25일 《조선인민에게 핵참화를 들씌우려는 미제와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을 단호히 단죄규탄한다》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는 우리의 어머니조국인 사회주의조선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한사코 짓밟으려는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광란적인 북침전쟁연습이 지속되는 속에 조선반도정세는 일촉즉발의 핵전쟁접경에로 치닫고있다고 지적하였다.

우리 공화국의 정정당당한 핵무력강화조치를 걸고들며 대조선정책안들을 검토한다고 부산을 떨던 미국의 트럼프행정부는 우리에 대한 《선제타격》을 포함한 군사행동까지 불사하겠다는 망발을 늘어놓으며 승냥이의 본색을 낱낱이 드러내고있다고 담화는 단죄하였다.

담화는 남조선주변에 미제의 전략무기들이 계속 몰아들고있는 속에 《칼빈손》호를 비롯하여 3척의 핵항공모함타격단들도 조선반도작전수역으로 투입된다고 까밝혔다.

더우기 격분을 자아내는것은 괴뢰보수패당이 《트럼프행정부는 망설이면 안된다.》, 《감당해내기 어려운 무차별적인 징벌을 가해야 한다.》, 《미국의 타격작전 환동》, 《북의 전략적셈법을 바꾸기 위한 노력 때가》라느니 뭐니 하며 미국상전의 말아오른 전쟁광기에 키질을 해대고있는것이라고 하면서 담화는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료녕지구협회 전체 성원들은 우리 민족을 핵전쟁의 참화에로 몰아넣으려는 미국과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의 분별없는 망동에 치솟는 민족적분노를 금치 못하면서 이를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미제와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은 우리 조국의 초강경대응조치에는 지상과 해상, 수중과 공중에서의 불의의 선제타격을 포함하여 세계전쟁사에 있어본적 없는 새로운 방식들이 포함되여있다는것을 똑바로 알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조국과 인민은 평화를 더없이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지만 결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피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미국이 원하는 임의의 전쟁방식에도 다 상대해주겠다고 한 경고가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것은 시간이 증명해줄것이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료녕지구협회 전체 성원들은 극악무도한 반공화국압살정책을 추구하면서 조선반도정세를 더는 수습할수 없는 초긴장상태에로 몰아가고있는 미제와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의 북침핵전쟁소동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정의의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것이다.

자체의 힘으로 공업화를 실현할것을 호소

우간다대통령 요웨리 카구타 무세베니가 최근 한 국제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아프리카나라들이 자체의 힘으로 공업화를 실현할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공업화와 전기화를 실현하는것은 아프리카의 지하자원을 보호하는데서 중요한 열쇠로 된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하부구조를 발전시키고 주민들에 대한 기술교육에 힘을 넣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나라가 제힘으로 발전하지 못한다면 과렴치한 외국기업들의 롱락물로 될수밖에 없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우리의 핵억제력강화조치는 정당하다

갖 발족된 트럼프행정부가 마침내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대조선정책을 확정하고 무모한 군사적행동을 개시하였다. 핵항공모함들을 비롯한 수많은 전략자산들을 조선반도에로 들이밀고있다. 국제사회에 4월전쟁설을 류포시키고있다.

하지만 미국은 심히 오판하고있다. 우리 공화국은 미국의 그 어떤 전쟁에도 다 상대해줄수 있는 당당한 핵보유국, 동방의 핵강국이다.

미제가 무력으로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을 타고앉겠다는것은 스스로 제 명줄을 끊어버리겠다는것과 같은 우둔한짓이다.

세계에서 절대병기라고 일컫는 수소탄으로부터 대륙간탄도로케트에 이르기까지 가질것은 다 가지고 고도의 격동상태에 있는 우리의 혁명무력은 하늘과 땅, 바다를 믿음직하게 수호하고있다. 혈강들의 각축전으로 수난을 강요당했던 지난날의 비극이 절대로 되풀이되게 할수 없다는것이 전만군민의 철의 의지이다.

우리 공화국은 강력한 총대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고있다. 흘러간 력사는 서로 적대되는 세력들사이에 힘의 불균형상태가 조성되면 반드시 전쟁이 일어난다는 교훈을 남기였다.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는 세계무역센터와 국방성청사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대습격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시 미국대통령 부쉬는 복수를 다짐하며 《반테로전》의 서막으로 아프가니스탄전쟁을 도발하였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침략대상으로 선정하고 손쉽게 가로타고앉을수 있은것은 이 나라의 군사력이 너무도 보잘것 없었기때문이다. 아프가니스탄전쟁은 거인과 난쟁이와의 싸움이였다.

당시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정권은 국제사회에서 인정도 못 받은 상태였으며 매우 미약한 군사력을 가지고있었다. 그러나 방대한 핵전략자산들을 가진 미국은 세계의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한 포악무도한 제국주의우두머리였다. 미국은 력량상으로 보나, 무장장비규모와 수준으로 보나 하늘땅차이인 아프가니스탄을 순식간에 타고앉고는 범잡은 포수마냥 기가 등등하여 날치였다. 미국이 련이어 이라크전쟁을 감행한것도 이라크가 저들과 상대가 전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기때문이였다.

사실들은 적대국가들사이의 관계에서 힘의 균형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전쟁은 피할수 없다는것을 실증해준다.

핵을 가진 원쑤와는 오직 핵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

신통히 핵없는 나라, 힘이 약한 민족을 골라 타격하며 힘자랑을 해대는것이 미국이다. 얼마전에도 미국은 수리아에 불의의 군사적타격을 가하였다.

오늘의 세계는 자기를 지킬 힘이 없으면 날강도가 휘두르는 폭제의 봉동이에 무참히 얻어맞고도 하소연할데가 없는 무법천지의 세상으로 되여가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비극적인 수리아사태를 보면서 자위적핵무력을 백방으로 강화해온것이 얼마나 정당하였는가를 다시금 절감하고있다.

미국의 핵위협과 공갈에 대처하여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유일한 방도는 침략자, 도발자들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릴수 있는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하는것뿐이다.

제2차 세계대전후부터 조선반도는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으로 되여왔다.

1950년대에 조선전쟁을 도발하였다가 패배의 쓴맛을 본 미제는 교훈을 찾을 대신 전후에도 계속 핵봉동이를 들고 우리를 위협공갈하며 반공화국침략전쟁연습소동을 끊임없이 벌려왔다. 그로 하여 조선반도에는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가 항시적으로 조성되여왔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제의 핵위협공갈책동은 랭전종식후 더욱 로골화되였다.

우리 공화국은 미국의 핵위협공갈을 종국적으로 끝장내기 위하여 핵보유를 국가로선으로 정하는 중대한 전략적결단을 내리였다.

우리 나라가 핵보유국으로 전변됨으로써 조미사이의 핵불균형상태는 비로소 끝장나게 되였다.

지난 시기 우리 나라는 핵탄두의 실물공개, 탄도로케트의 대기권재돌입환경모의시험, 대출력고체로케트발동기지상분출 및 계단분리시험,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 등 핵공격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취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이 떠드는 《힘만능론》을 강력한 자위적핵억제력으로 분쇄해버리였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폭풍노도처 내달리는 우리 공화국의 굴함없는 의지와 기상앞에 적대세력들은 공포에 떨고있다.

미국이 아무리 무인해도 미본토와 태평양작전지대안의 미군기지들이 우리의 타격권안에 들어있다는것은 현실로 증명되였다.

선제타격은 결코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다.

트럼프행정부는 아무앞에서나 힘자랑을 하려들것이 아니라 미친개는 몽둥이로 때려잡는다는 조선속담을 똑바로 새겨보는것이 좋을것이다.

미국의 강권과 침략의 희생물이 되여 비참한 운명을 겪고있는 이라크나 리비아, 얻어맞고서도 즉시적인 대응이 없은 수리아처럼 우리를 대한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을것이다.

우리 공화국은 앞으로도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국방력강화에 박차를 가할것이다.

김 승 철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는 위조품밀매현상

세계적으로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고 기업들사이에 시장화대를 노린 생존경쟁이 치렬하게 벌어지는 속에 비법적인 위조품밀매행위들이 대대적으로 성행하여 사회경제생활에서 커다란 물의가 일어나고있다.

얼마전 국제상표협회와 국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2022년에 가서 위조상품에 의한 판매규모가 2조 3 000억US$에 달할것이라고 한다. 지난 2015년에 위조상품에 의한 시장판매규모는 1조 7 000억US$로 추산되였다고 한다.

그만큼 위조품밀매행위는 날이 감에 따라 우심해지고있으며 경제생활전반에 미치는 후과는 막심하다. 더우기 사람들의 생명에까지 나쁜 영향을 미치고있는것으로 하여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많은 나라들에서 위조품밀매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끊임없이 울려나오고있다.

물론 이 문제가 오늘에 와서야 비로소 제기된것은 아니다. 지난 시기 위조품제조와 밀매행위를 막멸하기 위한 투쟁은 많은 나라들에서 진행되여왔으며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최근년간에만도 국제형사경찰기구가 전세계적으로 위조품제조와 밀매행위를 저지시키기 위한 작전을 진행하여 6 000여명의 범죄자들을 적발체포하였다.

결과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의 20개 나라들에서 위조상품을 제조 및 밀매하는 범죄조직들이 숙청되였다. 작전과정에 가짜알콜음료와 식료품, 가짜상표가 붙은 발동기들과 아무런 품질검사도 거치지 않은 많은 상품들이 몰수되였다.

지난해말에도 에스빠냐경찰과 유럽경찰기구는 프랑스국경과 가까운 동북부의 어느 한 곳에서 대규모의 위조상품류통거점을 적발하고 71명의 범죄자들을 체포하였다. 약 800만€에 달하는 위조상표를 단 시계와 보석, 옷가지 등 모두 27만점의 위조상품들이 압수되였다.

그러나 이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일확천금을 꿈꾸는 자본주의나라 범죄자들은 황금만능의 부패한 사회제도의 어두운 그늘속에서 경제생활을 혼란시키고 사람들의 생명안전을 침해하는 온갖 위조품제조와 밀매행위들을 서슴없이 감행하고있다.

세계적으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불량식료품의 생산과 밀매가 날로 성행하고있다.

현재 적지 않은 나라의 식료품제조업체들에서는 돈만 벌면 그만이라는 리기적목적으로부터 출발하여 극히 적은 량을 써야 하거나 사용을 금지해야 할 첨가제들을 대대적으로 사용하고있다.

어느 한 나라의 연구기관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불량식료품들에는 해로운 세균과 비루스, 기생충, 화학물질이 들어있으며 이것은 설사로부터 암에 이르기까지 각종 질병을 일으킬수 있다고 한다.

많은 나라들에서 사용이 금지되고 또 위험하기 그지없는 물질들이 여러 종류의 식품들에서 발견되였다.

아시아의 한 나라에서는 공업용화학물질인 멜라민을 첨가한 애기용우유를 먹은 후과로 콩팥이 손상되여 6명의 애기가 죽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2010년 8월 미국에서는 살모넬라에 오염된 5억 5 000만알의 닭알이 발견되였다.

도이췰란드에서는 이 나라 서부의 한 닭목장에서 쓰는 사료가 발암성물질인 디옥신에 오염되였다는것이 밝혀졌다. 결과 오염된 목장에서 생산된 고기와 알의 판매가 금지되였다.

2012년에 체스꼬에서는 수십명이 메타놀이 들어있는 술을 마시고 사망하였다. 2013년 유럽을 휩쓴 말고기소동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당시 유럽의 시장들에서는 소고기제품에 교묘하게 말고기를 섞어만든 불량식품이 나돌아 소동을 일으켰다.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이 떠드는 《세계화》의 흐름을 타고 불량식품을 비롯한 위조상품들이 한 나라, 한 지역의 범위를 벗어나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으로 물밀듯이 쏟아들고있다.

의약품위조행위도 우심해지고있다.

최근 유엔마약 및 범죄사무소는 가짜약품이 사람들의 건강안전에 위협을 주고있다고 하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였다.

가짜약품 역시 유효성분들이 모자라거나 지어 강한 독성물질까지 함유된것으로 하여 병치료는 고사하고 오히려 사람들의 건강을 파괴한다. 심한 경우에는 생명까지 앗아가고있다.

가짜약품들의 대부분은 수입제이다. 특히 발전되였다고 하는 서방나라들에서 가짜약품들이 적지 않게 나돌고있으며 수출되고있다.

언제인가 어느 한 나라의 수도에 있는 약국에는 《거리에서 구입한 약품은 목숨을 해친다.》라는 간판까지 걸려있었다고 한다.

실지 한알의 가짜약, 한방울의 가짜주사약때문에 여러 나라들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있다.

결국 사람의 목숨을 몇푼의 돈과 맞바꾸고있는것이다.

2006년에 세계보건기구와 여러 국제협조기구들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되는 국제가짜약품방지행동계획과 세계적범위에서 가짜약품을 없애기 위한 전략을 내놓았다. 여기에서는 가짜약품의 제조 및 판매를 형사범죄로 규정해놓았다.

이것은 위조약품생산과 판매를 국제법적으로 막자는데 있다.

많은 나라들이 수입을 식료품안전을 위협하는 중요한 공간으로 보고 수입상품제한조치에 관심을 돌리고있으며 법적통제를 강화하고있다. 또한 국제적으로 식료품들에 포함된 첨가제들의 정확한 명칭과 그 량을 상표에 밝힐것을 요구하고있으며 위반자에 대한 벌금을 제정하는 사업을 비롯한 여러가지 대책들이 세워지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도 위조품밀매현상들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고있다.

국제적으로 심각하게 번져지는 위조품밀매현상을 근원적으로 없애자면 온갖 범죄자들을 낳는 부패한 사회제도를 변혁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있다.

본사기자 라 명 성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동 중 산 계 획

잠비아에서 올해에 85만t의 동을 생산할것을 계획하고있다. 이것은 지난해에 비해 7만 6 000t 더 많은 량이라고 한다. 25일 이 나라 정부가 밝혔다.

경 제 장 성 목 표

마로끄에서 2021년까지 년평균 경제장성률을 4.5-5.5%로 끌어올릴것을 계획하고있다.

19일 이 나라 수상이 밝혔다.

식 량 안 전 조 치

케니아가 25일 식량안전을 위한 새로운 조치를 취하였다.

그에 따라 가물에 대한 견딜성과 소출이 높은 콩, 카싸바 등의 품종들을 기아와 영양실조가 우심한 21개 농촌지역들에 보내주게 되며 1000만명의 주민들이 그 덕을 보게 될것이라고 한다.

도로현대화계획

베닌정부가 19일 도로현대화를 위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계획에 따라 4.4분기부터 9개 도시를 련결하는 연장길이가 620km에 달하는 도로들을 새로 건설하거나 보수하는 공사가 진행된다고 한다.

그 실현을 위해 정부가 많은 자금을 할당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가나에서 코코아생산

로씨야무력 총참모부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가 로씨야와 중국을 겨냥한것이라고 주장

로씨야무력 총참모부 작전총국 부총국장 윅또르 뽀즈니히르가 최근에 진행된 제6차 모스크바국제안전회의에서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가 로씨야와 중국을 겨냥한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미싸일방위체계배치를 통해 로씨야와 중국을 겨냥한 미싸일 및 핵기습공격의 가능성을 현실로 옮기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는 로씨야와 중국의 한도미싸일을 요격할수 있는 충분한 성능을 보유하고있으며 두 나라의 전략핵무력에 잠재적인 위협으로 되고있다. 로씨야국경과 수역부근에 배치되고있는 미국의 지상떼비미싸일방위체계와 함선떼비미싸일방위체계들은 로씨야령토를 향한 미싸일 및 핵기습공격가능성을 가능하게 해주고있다.

미국측의 수많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로씨야무력이 진행한 미국미싸일방위체계에 대한 콤퓨터모의시험은 해당 전략군사장비들이 로씨야와 중국을 겨냥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는 미국이 이미 《전지구적인 신속타격》을 위한 공격무기개발에 착수한 상태이며 해당 무기들이 2022년에 미군에 실전배치될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있는데 대해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미국이 요격미싸일제한조약에서 탈퇴한 후 로씨야는 새로운 군비경쟁을 막기 위해 위협에 대한 공동분석을 진행하고 미싸일방위체계의 배치문제에 대해 합의할것을 제안하여왔다. 그러나 로씨야측의 모든 제안은 거절당하였다.

로씨야는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수립에 대응조치를 취할수밖에 없다.

【조선중앙통신】

ㄱ-710671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등록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편집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6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북과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